

으뜸양천과 함께 으뜸복지를 실천한
양천장애인복지 5년사

2009

제5편

부 록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 행복해요
 - 양천장애인복지 발전의 주역들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아띠 & 다솨이

2009

제5편 부 록

·
·
·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 행복해요

재활치료 바우처를 이용하며, 무거웠던 마음을 덜었습니다.

김승혜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바우처 지원으로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는 참 많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 혼자 집에서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가는 터라 아이를 위해 마음 놓고 치료를 받게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눈물 흘리며 많이 속 썩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조금씩 좋아지는 아이의 모습에 저는 돈을 버는 일과 아이의 치료 모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바우처 지원을 다양하게 서비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으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평이 좋아 문의를 하였습니다. 따뜻하게 바우처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쉽게 설명해주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치료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선생님들의 인상이 너무 좋아서 꼭 여기서 우리아이를 치료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러보니 시설도 깨끗하고 넓어서 더욱 욕심이 났습니다. 사실 바우처 지원을 받게 되면 무상으로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서비스라 기존에 돈을 많이 주고받았던 치료보다 아이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좋을까 의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벌써 7개월째 이곳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이곳의 시설과 친절한 선생님들의 치료적 전문성에 만족하였고 상담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등 너무나 세심히 지도해 주시는 덕분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언어적 자극을 줄 것인지 다시 배우게끔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양천복지관에 간다고 하면 좋아서 얼른 따라나설 준비를 합니다.

무엇보다 신뢰받는 기관과 선생님에게서 바우처 지원을 받으니 안심이 되고, 앞으로도 언어치료 이외에 다양하게 아이의 발달을 돕는 지원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언제나 마음껏 못해주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이제 이 집을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함께 해 주시니 참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이 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지만 도와주시는 기관과 선생님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개관을 벌써 5년째로 맞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이 서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약자들을 위해 약자들의 입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바우처 지원 사업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부모대학은 내 인생의 전환기

박정아

먼저 양천구의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다섯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이며 우리 아이는 지금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 발달이 늦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를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부모가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 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실 또는 복지관에서 하는 부모교육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부모대학에서 장애자녀 평생계획에 관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생계획에 대해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너무 막연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대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대학 교육과정은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주거계획, 교육계획, 소득계획, 재정계획, 평생계획서 작성하기까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하루 아이와 씨름하며 치료에 집중하던 것에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치료와 교육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개특강으로 이루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성교육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 7회기 과정의 부모대학은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에게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도 되었습니다. 관장님께 수료증을 받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부모대학을 통해 더 많은 부모들이 참여하여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추재엽 양천구청장님의 따뜻한 눈길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낌없는 복지 예산 지원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복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김주년 관장님, 복지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관 이용을 위한 짧았던 기다림! 그만큼 행복합니다.

김수현

양천장애인복지관 개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내 아이가 발달지연이 의심 되었을때 부모의 입장에선 조금 늦어질 뿐 시간이 지나면 해결 될꺼야 라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 보았지만 현실은 내 아이가 보통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에 큰 절망감과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안함,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가족에겐 큰 혼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왜 내 아이에게만 일어나야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수없이 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시간과 가족들이 있기에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주변에서 가르쳐주지 않기에 더욱더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더욱더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아이의 행동이였고, 그럴때마다 엄마로써 어떻게 해주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었습니다.

우연히 한 병원에서 만난 어떤 아이의 엄마에게 양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자녀 또한 장애로 인해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복지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대기기간이 길어 1년이 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기에 바로 양천복지관에 방문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의 장애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꼭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이용대기 기간이 길어 바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양천복지관에 전문 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대기자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사선생님 또한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주시고, 부모로써의 양육방법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양천장애인복지관이 어두운 긴 터널에 저 멀리 보이는 환한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양천장애인복지관과 함께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복지관 이용을 대기하고 있는 장애 아이들을 단기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장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더욱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최근 미

저희 아이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여 미술활동을 대기하여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2년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미술활동 프로그램 받은 결과 현재는 미술을 많이 좋아하게 됐고 무엇보다 미술에 대해 자신감이 많이 생기고 자기가 표현한 작품에는 자랑하며 나름대로 뿌듯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아이는 뇌병변장애라 잘 해낼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외부 작품전시회를 통해 아이는 자신감을 많이 얻고 우리아이가 작품전시회 보러오라는 글이 담긴 엽서를 받고 이야기를 했을때 또 한번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연 우리아이가 했을까? 아직 형태도 잘 표현을 못하는 제 아이가 작품전시회를 통해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물감, 지점토 다양한 미술재료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동생과 미술놀이를 하면서 서툰 모습으로 알려주는 모습을 볼때 미술에 흥미를 보이며 혼자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미술활동에 수업이 끝나면 오늘 활동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단어로 말하려고 하며 미술선생님이 오늘 수업했던 이야기를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활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에 제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어 행복합니다.

미술활동실에서 수업 뿐만 아니라 외부프로그램으로 미술관관람, 미술체험도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수있어 우리아이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거 같습니다.

외부프로그램을 통해 성격도 많이 활발해졌고 사교성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받고 싶고 양천복지관 5주년 대해 많이 축하합니다.

10년, 15년~ 앞으로도 쭉~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양천복지관이 지금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5주년 축하로 5주년양천장애인복지관 시를 지어봤습니다.~

5 : 5년동안	복 : 복지관에서 아닌 외부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주 : 주로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미술활동실에서는	지 :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고 양천복지관 선생님들 뿐만아니라
년 : 연5회동안 작품전시회를	양천복지관
양 : 양천구에서	관 : 관장님 감사합니다. !!~ 5주년 축하드립니다~~
천 : 천명이 모인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고 마음으로 그릴 수 있는
장 :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고 그린 창의적인 작품으로 노력하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미술활동 화이팅~~ !!!
애 : 애를 쓴 많은 작품들을 통해	
인 : 인자하신 관장님은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김 현 빈 엄마

올해로 우리 아이는 12살이 되었네요.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저희는 맞벌이 부부라 할머니가 키워왔고 할머니와 잘 지내는 아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산만하다, 공격적이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등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그런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산만하고 충동적인 문제가 더욱 심해져 진단을 받아본 결과 발달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애판정이 있는 후 대안학교로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고 우리 아이는 특수학급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심리검사를 받아본 결과 청각적인 주의력이 결핍된 ADHD성향을 보이고 연령대보다 발달이 지연되어진 상태이며,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병원에서 추천해 준 센터, 연구소, 복지관, 한의원 등에서 상담을 받고 각 기관에서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청한 후 기다렸습니다.

올해 3월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심리운동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론 기뻐지만 다른 한편으론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받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놀이에 대해 흥미가 없다, 그룹수업진행시 어려움이 있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이러한 불확실함에 염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염려는 곧 다행으로 다가왔습니다. 심리운동실을 이용한 후 아이는 적극적으로 다음에 또 가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곳의 친구들을 이야기하고 그 날의 놀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7개월가량이 지난 지금은 과거의 친구들을 괴롭히고, 공격적이며 수업에 방해가 되던 행동을 일삼던 아이는 친구들과 먼저 어울릴 줄 알며,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습니다.

아직 저희 아이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놀리고,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보니 지속적인 심리운동치료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아이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며, 아울러 장애인복지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주년 관장님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초등저학년 프로그램을 이용, 7개월의 변화가 희망으로

신재용 엄마

제 아들이 별하반에 수업 받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지났네요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발달장애 1급으로 별하반에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별하반 가는 날마다 들떠하는 아들을 보며 걱정을 접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래와 노는 법을 몰라 친구들 주변에서 맴돌던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바쁜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못해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던 엄마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별하반에서 현장학습으로 이곳저곳을 가보며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더욱더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을 보며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는 개구쟁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참교육의 목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 완벽하게 빨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도 더디지만 변화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어울려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선생님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이용으로 가벼워진 휠체어의 무게

김 성 국 엄마

먼저 아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선생님과 양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성국 엄마입니다.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것 말고는, 친구들과 장난치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떼쓰는 여느 초등학생과 같습니다.

어느 날 ‘엄마, 난 왜 걷지 못할까?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해람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해람반에서 한 수업 내용을 그날그날 가족들 앞에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뮤지컬을 봤는데 해람반에서 내가 맡은 역할인 장화신은 고양이가 나오는데 정말 멋있어요. 다음번에는 임금님 역도 해보고 싶어요.’ ‘오늘 토스트를 만들었는데 양파는 별로였지만 앞으로 먹어보기로 했어, 골고루 먹어야 건강해지는데요.’ ‘선생님이 나보고 노래 잘 부르는데, 다음번에는 샴방샴방을 부를 꺼예요.’ 아들은 어느새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던 아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 줄도 알고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줄 도 아는 의젓한 아이로 성장하는 것을 보며 부모로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덕분에 아들이 풀어야 할 휠체어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들도 양천장애인복지관도 더욱더 성장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성인언어교실을 이용해 세상과 다시 소통합니다.

서 순 덕

몇 년 전 갑자기 쓰러진 뒤 언어기능에 문제가 생겨 주변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갑자기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인정하기까지가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고, 또한 머리에서는 수 많은 말과 단어들 이 오고 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다니며 상담도 받고 언어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그 답답함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언어치료를 받으며 나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만나며 서로에 대한 아픈 마음도 눈빛으로 나눌 수 있었고 하루하루 수업을 들으며 조금씩 조금씩 말을 하기가 수월해지고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지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활동은 치료수업이 종결된 후에 그냥 끝나지 않고 비슷한 상황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격려하며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형성해 주고 있어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제는 말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 많이 수월해 졌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다보니 참 재미 있고 계속 하다보면 많이 나아질거라는 기대도 생긴다.

나에게 이런 장애가 오리라 생각은 못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에 받아들이며, 또한 이런 인연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되어 기쁘다. 오늘보다 좋을 내일을 꿈꾸며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5주년을 맞이한다니 축하의 인사도 전하고 싶다.

항상 신선한 물과 같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정옥

지체장애 1급으로 걷는 것이 많이 불편한 나는 지팡이에 의존하여 이동하던 중, 양천구에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생긴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다.

주변에 마땅히 운동, 치료 받을 곳이 없어서 나 역시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이나 고덕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거의 30km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다.

복지관 건물이 점점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개관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게 기다리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주년.

복지관에 도착하면 지하1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여러 운동기구들을 이용해 운동하고 힘들면 하늘공원에 올라가 꽃과 나무를 보며 담소도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어 매일매일이 즐겁다.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여러 여가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컴퓨터도 배우고 종이공예, 리본공예, 또 근사한 화분들을 만들면서 새로운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요즘에는 비누도 만들고 천연 화장품도 만들어 쓰고 있다. 요리도 배워서 가족들에게 솜씨도 보이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마주치는 선생님들의 밝은 웃음과 인사, 가끔 복도에서 만난 김주년 관장님의 미소는 참 편안함을 주신다. 또 김상오 자치회장님의 위트 넘치는 말씀은 우리 모두의 활력소다.

또한 이용자 모두가 한가족 같이 서로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는 문화가 있는 곳, mentor가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해를 거듭할 수록 멋진 변화를 잇달아 만들어 내는 곳,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나에게 있어 또 하나의 집이다.

나에게 희망과 웃음을 주었던 지난 5년 그리고 함께할 날들!!! 나에게 있어 언제나 신선한 물과 같은 곳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어 항상 행복하다.



양천구의 장애인복지메카,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 정 용 어머니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으로 주로 방과 후에 복지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내가 살고 있는 양천구에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장애아동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너무나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다운증후군이 있는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갖고 있어 지속적인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관 때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처음으로 겨울방학 계절학교에 참여했습니다. 방학 때 일반 아이들은 학원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지만 우리 아이들은 다닐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관에서 방학프로그램과 캠프를 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갖았습니다. 그 후로도 심리운동과 특수체육을 이용했고 현재는 레크댄스와 사회성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방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가 댄스를 잘 따라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6개월정도 지난 후 부터는 노래 한 곡 한 곡마다 동작을 기억하고 따라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많아져 예전에는 주로 혼자 놀거나 장난감을 갖고 놀았는데 이제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장난을 걸기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하기, 물건 구입하기 등을 배우면서 이제는 혼자 버스카드를 사용할 줄 알게 되었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꼭 영수증과 거스름돈을 받아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성장하면서 성숙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양천장애인복지관은 타 장애인복지관에 비해 양천구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양천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관의 발전을 기원하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날을 위해 우리 부모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천구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추재엽 양천구장님을 비롯하여 김주년 관장님, 복지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합교육으로 문제해결이 쉬워졌어요

신정어린이집 통합지원교사 정 유 경

저희 어린이집에서는 2003년부터 통합보육을 실시해오고 있었지만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기 전에는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마음이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매달 진행되는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매주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지원해주시는 순회자문선생님과 상담도 하면서 아이들 지도가 체계화되니, 답답한 마음이 하나 둘 해소되었습니다.

한번은 새로 들어온 아동 가운데 규칙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식사할 때 돌아다니고,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는데 해결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죠. 이 아이의 식사습관을 교정해주기 위해 순회자문선생님과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죠. 아이가 호감을 보일만한 방식을 장만해서 식사시간에는 그곳에 앉도록 유도하는 식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단기 적인 목표도 정한 뒤에 점진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식사 습관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혼자서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장애아동에 대한 공부도 별도로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최근 통합보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저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 선생님을 비롯한 어린이집의 선생님, 원장님, 학부모님들 모두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아동의 교육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양천구는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이 좋아졌어요

동지어린이집 이가윤 모 (문혜연)

가운이가 세 살이던 2007년 11월에, 우리 가족은 양천구 신정3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병원에서 터너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아이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할 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양천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가운이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모자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운이의 발달특성에 맞는 엄마의 역할에 대하여 놀이치료 선생님께 정보를 들으면서 조금씩 가운이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너무 밀접 되어 있어서, 집 근처 가정보육시설에 하루에 짧은 시간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적응이 어렵던 아이가 점차 적응해 갈 때 즈음, 복지관 통합보육지원센터 선생님께서 통합어린이집 입소를 제안해주셨습니다.

통합어린이집은 장애 아이들을 위한 전담교사가 배치가 되고, 통합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운이 발달에 꼭 필요한 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이방에 잘 적응하는 아이를,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통합어린이집에 다시 보내어, 적응시킨다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보육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이 통합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순회자문교사가 정기적인 방문지원을 하고 입소 전에 적응프로그램을 한다는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믿고 어린이집 입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다섯 살이 된 가운이를 보며 엄마는 통합어린이집에 보낸 것을 아주 잘 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전담선생님과 센터 순회자문선생님이 함께 가운이를 위하여 개별화교육계획안을 작성하시고 어린이집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늘 고민하시고 엄마와 지도방법을 논의 해주셔서, 가운이는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때로는 치료가 너무 많아 가운이가 힘들어 한다며 엄마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짚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도 매년 진행하여,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 할수 있었으며, 늘 부모로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복지관에서 진행된 통합보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어린이집 대표 부모로 참석하였습니다. 장애 아동 통합교육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고, 통합보육지원센터 지속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추재엽 구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양천구의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은 타구의 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천구와 복지관의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은 행운입니다.

양천구의 통합보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추재엽 양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김주년 관장님, 센터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와의 소중한 인연

신나는 어린이집 특수교사 이 예 지

먼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저희 어린이집은 2008년부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센터와 순회자문선생님의 지원으로 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현재는 통합반을 2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 더 늘릴 예정입니다. 신나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통합을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건 원장님과 전체선생님들이 통합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순회자문선생님과 함께 많은 회의를 했었고 또한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더 많은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순회자문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이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교수방법, 부모교육, 월 마다 진행되는 교사교육 등 통합에 필요한 모든 자문을 얻을 수 있어서 저에겐 너무나 든든한 존재입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 복지관 곳곳에서 힘쓰시는 여러 선생님들과 여러모로 지원해주시고 애써주시는 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열정으로 더욱 힘써주세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파이팅!!

우리아이의 변화! 그 변화로 내일을 기다립니다.

지선이 어머니

우리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릅니다.다우리 딸은 한창 뛰어다닐 7살 나이에 아직 걷지 못합니다. 세상이 뭐가 그리 궁금했는지 일찌감치 엄마를 만나러 온 덕분에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은 아직도 엄마의 손을 잡고 세상을 걷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물리치료를 이용하다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 한다고 하였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프로그램을 신청한 끝에 물리치료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를 이용하면서 눈에 띄게 좋아지는 우리아이의 모습에 항상 감사하며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이 생겼습니다. 수중운동 이용순서가 되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아이는 물이라면 손톱에 닿는 것도 싫어합니다. 2살 때 사놓은 수영복은 물 한번 적시지 못한 채 작아져 버렸고 물놀이는 커녕 매일 아침 세수하는 것도 전쟁이니 저에겐 어떤

문제보다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딸이 수중운동을 하며 물에 대한 투정도 없고, 시간이 흘러 물에서 혼자 한발 두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물속에서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느린 우리 딸이 혼자서 걷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도 저는 물속에서 걷고 있는 우리 딸을 보며 훗날 밖에서 잘 걷는 딸을 꿈꾸며 지난 5년간 한결같은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양천장애인복지관의 개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멋진 복지관

김영복

계 갑작스럽게 다가온 중풍(뇌졸중)은 저와 제 식구들 모두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재활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일반 병원은 치료비도 비싸고 시간 소요도 많이 되어서 부담이 되었는데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을 받고 나니 기다려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재활운동을 조금씩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룹으로 진행되는 물리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통해서 성인그룹 운동발달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왼쪽 편마비 환자로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혼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적인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서 기초적인 운동에서 어려운 운동들을 하다 보니 제게 부족했었던 부분과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스스로를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특히 제게 필요했던 발목 움직임 만들 수 있는 운동들을 선생님과의 상담과 지도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고 점점 발목의 움직임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기뻐합니다. 물론 저의 예전의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좋아지는 제 모습에 저도 더욱 신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예쁜 미소로 저를 대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양천장애인복지관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럼 멋진 복지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루게릭, 그 낯선 병을 작업활동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박 건 태

2년 전 출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루게릭이란 진단명을 받았다. 너무나 생소한 병명...가족들 또한 처음 듣는 병명에 감기처럼 한번 심하게 앓고 툭툭 털고 일어날 줄만 알았다.

하지만 하루 하루가 다르게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질 않는 나의 손과발.... 내 나이 40....

그래서 아직은 젊은 나의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다. 이제 막 글 읽기에 흥미를 느끼는 아들에게 글씨를 알려주고 싶지만 예전처럼 손이 움직여주질 않았고 호흡 또한 약해져 아내와 아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 또한 힘들어졌다. 그리하여 내 이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찾게 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을 통해 작업치료를 받게 되었고 작업치료 선생님께서 연필을 쥌 수 있도록 글씨 보조기를 만들어 주셔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한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요즘은 약해진 호흡 훈련을 통해 호흡하기도 편해졌으며, 예전보다 식사하기도 수월해졌다.

치료부터 나를 위한 보조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셔서 현재 기능이 더욱 향상 되었다. 덕분에 2년만에 메마르고 건조했던 내 삶에 촉촉한 생기가 흘러 넘친다. 다시 한번 제 삶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 작업치료 선생님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 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을 마칩니다.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시는 천사

정 성 희 어머니

저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특수체육 수업을 받고 있는 정성희 아동의 엄마입니다.

우리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과정이 늦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지만 청천벽력같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 소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땐 아이아빠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목동에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받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논을 하여 프로그램에 대기명단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특수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리아이가 처음으로 접해보는 운동을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저에게 조금해 하지 마시고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히 보니 아이를 데리고 다닐때도 항상 제가 아이를 끌고 다니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 마다 아이의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볼때면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우리아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너무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아이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점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낯선 사람을 볼 때도 씩씩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볼 땐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이곳이 개관한지 5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적어도 10년이상은 되었을꺼라고 잠시 생각은 한적이 있었지만 5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랐습니다. 5년만에 이렇게 희망차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니 관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가 상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눠주시는 천사가 되어주십시오. 개관 5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상과 통(通)하는 직업적응훈련 ’

원 종 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대한 문을 두드렸을 때 사회의 높은 벽에 좌절하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수차례의 취업문에서 낙오를 거듭하는 딸을 보며 장애등록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이대부속병원에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난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집에서만 일과를 보내던 성희가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기존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지고 조금씩 모든 일에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직업적응훈련과정을 통해 첫 취업을 나갔을 때 당당히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희의 모습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세상과 통(通) 하는 길을 열어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통합보육시설 보육도우미로 활동하는 성희는 그 어느 때 보다 행복하다고 말 합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는 성희에게 보육도우미 일은 행복

그 자체 일것 같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 아이들과의 일상 이야기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성희를 보며 환한 웃음이 지어집니다.

10월이면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

그동안 지역장애인들에게 세상과 통(通)하는 길을 열어 준 역할을 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찾아와 행복을 나누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토피어리 디자이너를 꿈꾸며’

민 명 화

장애를 갖고 있지만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어느 날 우편물이 와 있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라고 쓰인 봉투 속에는 ‘토피어리 디자이너 과정 참여자 모집’ 이라는 홍보물이 들어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던 나는 무심코 그냥 홍보물이니 하고 지나쳤는데 자꾸 토피어리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아 복지관에 전화를 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 왠지 정감이 가는 게 궁금하여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수업을 듣겠다고 등록을 하였다.



수태라는 이끼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물에 적신 수태를 만지면 부드러워지고, 거칠기도 하는데 그 느낌이 날 토피어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같았다.

수업의 회를 거듭할수록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내 손에서 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느낌은 직접 만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주부+엄마+직장인+토피어리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는 슈퍼우먼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벌써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복지관을 모르고 지냈던 5년이라는 시간이 되돌아보면 나에게 너무나 아까운 시간으로 느껴진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변화의 촉매제 컴퓨터교육을 수강하며...’

오 광 용

평소 컴퓨터에 대한 체계적인 공부의 필요하다고 느꼈으면서도, 막상 수업을 신청하려니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분위기는 얼마나 어색할까? 하는 우려가 나의 용기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다짐을 하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가 컴퓨터 교육을 신청하였다. 그렇게 하루하루 수업에 참가 하며 나의 걱정은 기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는 급우들은 장애를 가졌음에도 밝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나에게 많은 감동과 큰 용기를 주었다. 그렇게 수강생들은 서로 모르는 것들을 알려 주고 배워가는 즐거운 분위기에서 컴퓨터 교육을 수강하였다.

처음에는 컴퓨터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터라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교육을 수강하다보니 컴퓨터에 대해 조금씩 익숙해지고 실력도 향상 되었다. 그러면서 컴퓨터교육을 통한 복지관 이용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에 참가하게 되어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재가중증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컴퓨터를 가르치는 보람된 일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컴퓨터를 배울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깊은 감사드린다. 또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고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까지 알게 되어 나에게 있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에너지와 같은 곳이 되어 버렸다.

‘행복과 기쁨이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은경

학교 졸업과 동시에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하여 15년간을 다녔습니다.

큰아이가 11살 되던 해, 앞으로 온전히 육아에만 전념하리라 다짐하면서 회사 일을 접었습니다. 아이에게 모유가 좋은 것처럼 아이도 엄마가 품어서 키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떠나 제가 왔던 길을 돌아보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것 외에 특별히 해 놓은 일이 없었습니다. 서글프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봉사활동에 대한 상담했습니다. 나의 전공하고는 상관없지만 상담자께서 영유아 보육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곳에서 매주 1회 2시간씩 약 2년 정도 아이들 돌보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나의 시간을 그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누가 강요하지도, 누가 평가하지도 않는 그 일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곳으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이 가벼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기쁨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했던 아이들은 지난해 12월에 수료하였고, 지금은 컴퓨터 교육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컴퓨터를 배우시는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나도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까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인생에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집 가까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희망 바이러스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은영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2008년 4월 복지관에 부착된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안내문을 보면서 반신반의의 마음으로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용기를 내어 참가신청을 한 후 일자리 사업 참가자 선정 통보를 받고는 너무나 기뻐지만 두려운 마음도 반반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일자리사업의 첫 직무는 구직 장애인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실 관리업무였다. 오시는 분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후 첫 급여를 받은 통장을 보고 또 보며 희망이라는 것에 의미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전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대해 포기하고 지냈던 나에게 일자리사업 참가는 삶에 새로운 도전이었다.

올해도 일자리 사업에 참가 해 복지관내 장애인 목욕탕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나보다 더 힘든 장애인분들의 목욕을 돕고 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나의 마음을 일깨워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일자리 사업 참가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나의 희망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 확신한다. 양천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이용자로 3년, 일자리사업 참가자로 2년의 시간을 복지관과 함께 보내며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개관 5주년을 맞이하는 복지관에 형언 할 수 없는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희망바이러스의 한사람으로 걸음을 같이 하고 싶다

복지양천만들기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선설농탕 한승옥 차장

저는 신선설농탕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승옥입니다. 우리 신선설농탕에서는 나눔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설농탕 무료급식을 실시하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설농탕을 대접 해 드리고 싶다며 사랑의 밥차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할 때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식사까지 도와드려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걱정이 있었지만, 몇몇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 독립적으로 식사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우리의 편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우리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복지양천만들기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4번의 사랑의 밥차를 운행하며 무료급식을 제공, 복지관과 신선설농탕이 하나되는 복지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신선설농탕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먼저 신선설농탕 오청 사장님께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장을 받으셨고, 2008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한분 한분이 신선설농탕에 적어주신 소중한 감사한 덕담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되었으며, 2009년 초복에 사랑의 밥차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정성껏 만들어 주신 홍보 판넬은 다른 곳에서 받지 못한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양천구 내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기관으로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선물해준 얻어준 나의 치아

정 종 철

내가 처음 양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찾은 것은 2005년 11월 경으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2000년 뇌손상에 의한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사고 전에는 당구장도 운영하고 택시운전도 하였으나, 장애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생활이 어려워졌고, 취업에 대한 갈망은 있었으나 취업이 좀처럼 쉽지는 않았다.

2005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한 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면서 어려운 생활에 밀반찬, 생필품 등 생활지원을 받았다.

처음 도움을 받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언짢은 기분도 들었으나 나에게 대한 복지관 직원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정성어린 도움이 진심임을 알고 마음을 열게 되었다.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다름 아닌 치아에 있었다. 앞니 4개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위장장애와 부정확한 발음으로 언어치료를 받은 상태였고, 대인관계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었다.

이런 나의 딱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장애인복지관에서 내 치과진료비를 후원해 줄 독지가가 있으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치과진료는 적은비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가족의 일처럼 나서서 애쓰는 복지관 직원들을 보면서 ‘으뜸양천 으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의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나는 희망의 씨앗을 선물받은 기분이다.

자원봉사로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렸습니다.



자원봉사자 이승록

저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 4년 동안 장애아동 수업보조, 계절학교, 지역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이승록입니다.

우선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관과의 인연은 우연히 양천구 소식지에 실린 계절학교 봉사자 모집글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 계절학교는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다양한 현장학습이나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겪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많이 답답하였는데 아마도 그것은 무의식중에 있던 저의 편견을 깨지 못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던 와중 오히려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고, 간식을 나눠주는 모습을 통하여 제 안에 편견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 생각을 하니 저도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아이들에게도 제 진심을 느꼈는지 잘 따라 주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통하여 제 자신이 한결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도 많이 뺏기고, 힘들지 않냐?”라고 종종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의 작은 힘으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감사함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봉사를 통해 성숙해지는 저를 발견하면서 미약한 힘이나마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먹거리 나눔으로 행복한 보람을 만듭니다.



김 현 미 사비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연은 2008년 성당 봉사활동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해 본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한달에 두 번 밑반찬을 만들어 장애인 가정에 배달을 해주는 것이 활동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성당봉사팀원들과 상의한 끝에 신정동에 있는 10가정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가정주부인 제가 밑반찬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밑반찬을 담은 도시락을 배달하는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일년이 넘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방문 때마다 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동네다 보니 길을 다니다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때면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이웃간에 정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어릴적 이웃간의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어 힘든점 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늘 봉사활동을 하는 저희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복지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향연주회에 초대해 주셔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용인에 경치좋은 식물원으로 나들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예쁜 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천구에 살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길 바라며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개관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복한 양천, 복지공동체를 지지합니다.

이마트 목동점 임 범 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마트 목동점에서 근무하는 인사파트장 임범규입니다.

우리 이마트 목동점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즈음,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자며 복지양천만들기 업무협약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또 걱정했지만, 이렇게 한 걸음 나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업무협약 체결에 동참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우리가 지역 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달 한 번씩 복지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청결하고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설거지, 식판 서빙 봉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천구 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이마트 영수증 마일리지 모금함 비치에 적극 협조하고, 추석을 맞이해 이마트 목동점의 전직원은 지역안에서 나눔을 실천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조금씩 모은 쌀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이마트 목동점이 위치 해 있는 양천구가 더욱 살기 좋은 복지세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배우며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파트너이자 사회공헌의 멘토 역할을 하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올해 다섯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양천구 내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써주시길 바라며 우리 또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양천구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파트너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것입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5주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케이블TV 지원으로 집안에서 세상과 소통합니다.

김 관 수

저는 61세된 김관수입니다. 1998년에 뇌출혈로 장애1급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몸이 불편하게 되니 바깥출입도 힘들고 뭘 하나 하려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지요.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주러 복지사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양천케이블 tv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내는 몇 폰 안되지만 그래도 벌이하러 나가야해서 하루하루 무료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케이블 tv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방송을 보거나 종교방송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게 답답하긴 하지만 tv로 세상구경을 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장애인의 심정을 먼저 헤아려서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도움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인활동보조는 장애인의 손과 발입니다.

조상희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장애인 조상희입니다.

밝은 성격으로 장애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았지만 30대 이후 건강이 악화된 후 외부와 단절된 생활, 모든 삶의 의욕상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8년 3월 복지관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슈퍼조차 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내가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혼자 외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처음 활동보조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의 불편함을 일일이 설명하며 적응해 가야 하는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를 설레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활동보조인과의 동행이 벌써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활동보조인은 이제는 어쩌면 가족보다도 가까운 내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식사를 하고 가사일을 도와주며 외출준비를 함께하고 복지관으로 함께와 컴퓨터교육을 받고, 때로는 목욕도 함께 합니다. 나의 일과를 같이 하는 활동보조인이 있어 항상 든든하며,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활동보조인 없이 혼자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늘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복지관과 있어 행복합니다.

양천장애인복지관 파이팅!

이사할 때의 막막함을 복지관이 덜어주었습니다.

노 상 오

저는 신월3동에 사는 지체장애인입니다. 1997년에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어 오른쪽 손이 불편하답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워 두 자녀를 혼자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지난 9월 복지관에서 보내주는 양천복지뉴스를 보고 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들어온 것이 이사지원서비스였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내야되는 월세가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50만원이 넘는 이사비용도 엄두가 안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막막하던 차에 복지관에서 이사업체와 연결이 되어서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돈도 없고 몸도 불편한 사람들에게 정말 고마운 도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9월 12일에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이사짐 하나하나 세심하게 정리해주셔서 비록 집안은 별 볼일 없지만 새로운 집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려운 고비에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장애없는 우리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숙 희

저는 신정2동에 사는 정숙희입니다.

소아마비로 양하지 장애가 발생하였고, 좌측보조기를 신고 보행을 하며 이동시 전동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 보니 집이나 밖에서도 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안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편지에 가정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준다는 정보를 알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남편 또한 같은 지체장애인이어서 집에서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걸어다닐때 넘어질까 불안하고 또 실제로

자주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깁스를 했던 적이 다반사였습니다.

현관입구와 방 벽에 핸드레일을 설치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예전보다 많이 확충되어서 지역에서 이동하는데는 불편함이 감소되고 있으나 개별 가정에게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것이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는 복지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리모컨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조 미 숙

저는 소아마비에 청각장애 2급으로 혼자살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은데다 지체 장애로 몸도 불편하여 거의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9년 4월에 복지관에서 저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고 하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복지관을 알지도 못했고 재가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직접 우리집까지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복지사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집 밖에 누가 왔을 때 방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또 리모컨으로도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신다는 서비스 내용은 걸어다니는 것과 듣는 것이 불편한 저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살고 있기에 이러한 도움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낮모르는 사람이 와도 잘 들리지 않아 큰소리로 몇 번이나 누구인지 확인해야했고, 누군지 모르는 불안을 안고 문을 열어줘야했던 적도 많았지만, 비디오 화면으로 문 밖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요



사랑의 밑반찬, 반찬을 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 준 목

저는 신월동에 사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로 우측 다리가 불편하여 오랜 시간 걷거나 서있을 수 없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공장에서 인형, 시계 등의 작은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었지만 지금은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면서 장애가 더 심해져 더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활동을 그만 두게 되면서 제 생활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선은 수입이 없어지게 되니 당장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나 혼자 살면서 끼니를 거르게 되고 반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여 어려운 점이 많던 중 양천장애인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도시락 지원은 알고 있었으나 나도 해당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하며 문의하였는데, 양천지역의 독거 남성세대를 위해 한달에 두 번 밑반찬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반찬 덕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봉사자 분들의 밝은 인사로 지친 마음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ONE 하나 더 나누기로 착한 딸과 손자가 생겼어요.

박 옥 단

저는 목동에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자녀 없이 남편과 함께 살다 5년전 남편을 잃고 계속 혼자 적적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지체장애 2급으로 좌측 편마비로 지팡이를 사용하여 걷다보니 외출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일상생활을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인근의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고 안내 받았지만 다리가 불편하다보니 자주 참여하기가 어렵고 이동목욕차량이 오는 날에만 겨우 외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로워하는 저를 위해 양천장애인복지관에서 +one 하나 더 나누기를 안내하며 가까이 살고 있는 젊은 여자 분을 소개해주셨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말벗 봉사자로 생각하였으나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이제는 친딸처럼 나를 챙겨주고 생각해주니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묻고, 혼자 살고 있어 끼니를 거를까 반찬을 챙겨주고, 명절이 되면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찾아와 어깨도 주물러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면서 혼자 살던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는 것 같아 감격스럽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없어 외롭던 나에게 귀한 가족을 선물해준 양천장애인복지관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 생활에 큰 사랑을 알게 해준 장애인의 파수꾼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삼식

저는 심장장애로 숨이 차서 병원 정기진료 외에는 외출이 어려운 홀몸노인입니다.

온몸에 멍이 쉽게 들고 붓기가 잘 빠지지 않아 고생을 하며 외로이 지내던 중 지난 2008년 5월에 복지관에서 생활이 어렵고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고 하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재가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직접 우리집으로 오셔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해주시는 복지사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혼자살고 있는 내가 걱정되어 직접방문 및 통신으로 건강과 외로움을 확인하고 각계각층을 설득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여 매월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실제 저의 생활에 경제 및 여러 가지 문제를 지원하시며 가족과 같이 돌보시고 삶에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월 정부보조금만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을 하기엔 빠듯했는데 정기적인 도움으로 생활에 안정을 찾고 나를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켠 따뜻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외롭고 어둡던 내 삶에 큰 사랑과 나눔을 알게 해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과 사회복지사님 사랑합니다

처음 시도해본 노래자랑, 그 행복한 순간

염 향 순

장애인도 일반사람들처럼 똑같이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에 대해 참여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도 모르지요 아무래도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한이 많아서 더 그렇습니다.

저 또한 장애를 갖기 전에는 음악과 노래부르는 것을 매우 즐겨했습니다. 지금은 사고로 지체3급의 장애가 있어 원하는 만큼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중 2008년부터 복지관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와 국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공연은 멀리 공연장까지 가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집 근처의 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는 것에 복지관이 세심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행사를 준비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6월 양천구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노래자랑 대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양천문화회관을 짝 채운 사람들과 숨겨둔 끼를 마음껏 발산하던 장애인의 모습은 장애인이라고 특별할게 없고 비장애인처럼 똑같이 노래하고 즐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양천구청장님도 오셔서 장애인을 격려하고 첫회로 열리는 노래자랑 대회를 축하해주셔서 얼마나 기뻐던지요. 떨리는 맘으로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많은 대중들 앞에서 동상도 받게되어 그 기쁨은 말 할 수 없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그때의 기억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하여 많은 장애인이 하루동안이지만 크게 웃고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관장님과 복지관의 행사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신 구청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

제5편 부 록

•
•
•
•
•

양천장애인복지 발전의
주역들



총무기획팀

신광명 팀장

이강조, 조홍래, 최성일, 곽상규, 이영미,
김은희, 나춘희, 조성숙, 김문희, 오명선,
김수남, 김문희



적극적인 참여가 최고가 될 수 있는 초석이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벌써 다섯 살의 나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5년의 시간동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참으로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총무기획팀은 업무 특성상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 이용자들로부터 감사의 말 보다 다양한 민원을 많이 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민원이라는 작은 관심들이 우리 양천장애인복지관을 최고의 시설로 운영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칭찬에 힘입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고, 복지관 직원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등 보이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8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당당하게 우리 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이렇게 짧은 5년동안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게끔 같이해주신 장애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양천장애인복지관 발전의 숨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복지팀



신사임 팀장

김인수, 한연경, 나주연

無장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양천구 1만7천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장애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복지팀은 양천구 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지역자원을 개발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양천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편견은 단기간에는 절대로 해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관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함께라는 공동체의식과 장애인이 아닌 내 이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역내 기관 및 봉사자, 주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공동체 만들기 업무협약이나 연인원 4천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분들, 51만 양천구 주민 여러분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결과 으뜸 복지관, 으뜸 지역복지팀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희 지역복지팀에서는 지난 5년동안 해왔던 것처럼 오늘도 양천구에서 無장애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지원팀

채춘호 팀장

오경옥 정보화교육강사,
한상명 직업재활사,
정연아 직업재활사, 박현아 직업재활사

당신이 경쟁력입니다

직업지원사업은 2004년 개관 초기부터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직 장애인 DB구축, 고용기반 형성이라는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사업수행을 가졌으나,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에 대한 인식저화로 전반적인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개관초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고용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개입전략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춘 직업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체계적인 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5년간 단계적으로 고용시장의 안정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특히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직업공과훈련 사업은 전문직업인 양성의 시대적 패러다임과 접목하여 특화된 직업공과과정(토피어리, 텔레마케터)을 개설하고 구직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특강사업을 통해 구직 장애인의 직업적 소양을 고취하고 직업탐색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수행을 통해 5년간 관내 전체 등록 장애인 중 43%에 해당하는 7,465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적 성과를 거둔 5년을 기반으로 향후 직업지원팀은 재가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과사업단 운영, 중증장애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자회사형 외주사업장 구축,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적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가올 5년을 힘차게 준비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재가복지팀



안보현 팀장

서숙현, 장지성, 황영하, 성희선

찾아가는 서비스의 선두에서 장애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2004년 개관 이래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복지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만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용방법 등을 몰라 서비스를 접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기존의 지역복지에 포함되었던 재가복지사업을 분리하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400여명의 장애인에게 새로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정내 이동과 주거생활의 편리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217명에게 지원하였고, 활동보조지원사업도 2007년에 42명에서 2009년에 154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서 복지관과 재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증폭되어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재가복지팀은 이와 같은 성과를 더 많은 장애인이 누릴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급변화로 신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지원팀

송영희 팀장

김미희, 김은아, 박성애, 백부영, 박수경,
권진숙, 박진숙, 최유리, 이지현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아름다운 디딤돌 되기

5년전 지역내 유일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 우리 복지관이 개관한 이후 장애를 가지신 분들 2500여명이 저마다 다른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복지관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족지원팀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써 자립해 나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장애를 바르게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하고 환경조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심리재활사업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자녀의 장애로 인해 삶이 달라지게 되는 부모와 형제, 배우자와 부모의 장애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족, 이 모든 분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부모대학> 등 가족지원프로그램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그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가 장애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긴 안목과 열린마음,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이 장애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노력은 복지관을 찾아오는 장애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독려하는 복지관 운영철학이 뒷받침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직원으로써 개관 5주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이후 계속될 변화발전을 확신합니다.

통합교육팀



차현정, 박희정, 안덕근, 석보라, 김선미

우리들의 열정으로 아이들의 살아갈 세상을 바꾸자

양천구 장애 아동은 우리가 책임진다! 라는 생각으로 달려온 지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 전, 복지관 이용 대기 아동 중 취학 전 장애아동 50% 가 일반보육시설 및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장애 아동 교육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은 한곳도 없었으며 장애전담교사가 배치된 통합보육시설이 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4년 개관에서부터 단계별로 지역 내 일반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통합보육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중 장애아 통합보육의 전문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하여 2006년부터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는 순회자문교사를 지역 사회 내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질 높은 통합보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통합보육 환경에 있는 시설장, 교사, 부모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09년 현재, 양천구 국공립 15개소에서 통합보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내의 장애위험군 아동 관리 및 지역사회 내 장애아 통합 지원체계로 센터가 정착되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장애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가정보육시설에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0년 장애아동 의무교육에 따라 양천구 내 유치원에 장애아동 및 위험군 아동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하여 양천구 내 학령전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내 장애 아동 관련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보육지원센터가 법 제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기능팀

박수근 팀장

정미선, 백진주, 김란, 김계형, 김민선,
설제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활 파트너

우리 운동기능팀은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천적 또는 중도장애를 입은 분들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되기를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복지관 개관과 함께 우리 팀이 담당하고 있는 운동발달, 작업활동, 수중운동, 특수체육 프로그램에는 그동안 재활에 목말라 하시던 분들의 접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이용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즉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미안한 마음이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을 맞이하여 우리 복지관에서 획기적으로 대기자 ZERO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발맞추어 재활서비스를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때 그 기쁨이야말로 그동안 기다림에 지치셨던 분들의 마음에 버금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을 위해 신월보건지소에서 찾아가는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수중운동을 개설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증진에 일조하였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문명의 발달로 인한 중도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로 볼때 리 운동기능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필요로 하는 분들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운동기능팀도 기능적 장애를 갖고 계신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개발하는 등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9

제5편 부 록

•
•
•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아띠 & 다솜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아띠 & 다숨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1만7천여 명의 장애인분들에게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주신 후원자 분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참여가 없으셨다면 최고의 장애인복지를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린마음으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복지사업에 지난 5년간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아띠는 친한 친구, 다숨이는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입니다.

후원을 통해 희망을 나눠주신 분들

● 단 체

(사)아주복지재단, (주)STX, (주)리젠시컴, (주)사피엔스이십일, (주)스타벅스코리아, (주)쌈지, (주)오광건업, (주)우리협, (주)지오컴퍼니, (주)한국아쿠르트, (주)한커뮤니케이션, (주)현대엔지니어링 직원봉사회, CBS 수호천사, KT사랑의봉사단, yes24(주), 곰달래뼈다귀, 교보생명 대림FP지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천지사, 국민은행 목동중앙지점, 국민은행 양천지점, 국민은행 종암지점, 그리스도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금강보청기, 김영사출판사, 네오위즈, 다숨어린이집, 대가(大家), 대한유치원, 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드림오피스, 등촌교회, 디미방목동점, 따뜻한마음재단, 뚜레주르 목동센터점, 럭키마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명지출판, 목동8단지부녀회, 목동제일교회(3교구)

● 개 인

강 용, 강광역, 강길구, 강상희, 강성구, 강장선, 강종원, 고경휘, 고민석, 구진영, 구혜영, 권혁조, 길영아, 김경호, 김경환, 김경희, 김광영, 김교연, 김규진, 김규태, 김기수, 김기영, 김기용, 김대호, 김덕규, 김동식, 김동영, 김동욱, 김동훈, 김두환, 김명식, 김명환, 김문식, 김민호, 김병갑, 김병울, 김병철, 김병철, 김상기, 김상일, 김상현, 김상훈, 김성남, 김성준, 김수정, 김영수, 김옥선, 김용덕, 김용백, 김용태, 김우진, 김원명, 김윤규, 김윤식, 김은우, 김은주, 김인섭, 김지영, 김재근, 김재명, 김종인, 김종해, 김주만, 김주환, 김준상, 김중경, 김지현, 김창환, 김철수, 김태민, 김태희, 김동호, 김학량, 김학영, 김현옥, 김호남, 김홍원, 김희수, 류규희, 류기국, 류정현, 류종은, 문승진, 문창근, 박동철, 박미경, 박미정, 박병규, 박병렬, 박병철,

박병호, 박봉갑, 박봉민, 박삼순, 박상구, 박수철, 박언호, 박영선, 박용익, 박은영, 박인범, 박재유, 박정숙, 박종국, 박종철,
 박종해, 박종현, 박진균, 박창석, 박창하, 박철성, 박태근, 박 학, 박희식, 박희정, 백승현, 백일신, 변경인, 변두남, 변수진,
 변영자, 서동녕, 서동목, 서동선, 서문진, 서주연, 서준호, 서현규, 설기창, 성환두, 손선중, 송기현, 송명훈, 송영희, 신관호,
 신동호, 신창수, 신철호, 신학식, 심민섭, 심용석, 안병철, 안수한, 안호영, 양성봉, 양승용, 양영식, 양용규, 양종현, 양현용,
 양희철, 엄경진, 엄지원, 염해수, 오석핀, 오재옥, 오종덕, 오준석, 왕동영, 왕상욱, 왕팔만, 유남옥, 유병호, 유재룡, 유재혁,
 유총렬, 윤건수, 윤경종, 윤 미, 윤보영, 윤완호, 윤현철, 윤호규, 이강조, 이경섭, 이경아, 이경익, 이귀운, 이규진, 이근우,
 이대봉, 이명길, 이명원, 이문선, 이상길, 이상철, 이상현, 이선영, 이성은, 이순현, 이승만, 이승일, 이시행, 이완택, 이용고,
 이용광, 이용주, 이운행, 이원배, 이윤범, 이은성, 이은혜, 이인섭, 이장복, 이재호, 이정재, 이정혜, 이정호, 이정환, 이종문,
 이종인, 이종환, 이주수, 이준섭, 이준용, 이중권, 이지민, 이진철, 이창근, 이창훈, 이채영, 이필훈, 이학래, 이현노, 이형숙,
 이해순, 이홍용, 임공순, 임동열, 임병홍, 임양배, 임영운, 임은정, 장봉진, 장 준, 전금성, 정경숙, 정규중, 정기선, 정길수,
 정석남, 정석환, 정수영, 정양훈, 정연진, 정은덕, 정운석, 정운성, 정창우, 정창주, 정천환, 정호영, 조민철, 조상철, 조상희,
 조승기, 조윤식, 주영동, 지동호, 진경백, 진성희, 채유진, 천광우, 최강의, 최국진, 최규경, 최대은, 최성일, 최승호, 최영봉,
 최영실, 최원호, 최은영, 최자영, 최장영, 최종창, 탁권성, 허금순, 허대식, 허천수, 허충식, 한기룡, 한승희, 한윤선, 한정숙,
 한형희, 허명재, 허봉식, 현익수, 현종일, 홍상기, 홍석천, 홍준기, 황선기, 황용섭, 황정선

자원봉사를 통해 사랑을 실천해주신 분들

● 단 체

강서수도사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국민은행 목동중앙지점, 국민은행 양천지점, 국세청 양천세무서, 네오위즈, 대한적십자 양천지부협의회, 등촌교회, 명덕외국어고등학교, 목5동성당, 목동성당, 목동제일교회, 미용사회양천구협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법안정사 봉사부, 삼성화재 , 상록회, 새마을부녀회 양천지부,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메트로 양천구청역, 서울시의회, 신정3동성당,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양천성당, 양천소방서, 우리은행 목동역점, 우리은행 양천구청점, 우리은행방배역점, 이마트 목동점, 장미회, 제자교회, (주)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 한국아쿠르트 유통서부지점, 한국자유총연맹 양천지부, 한국전력공사 강서지점

● 개 인

가복순, 가여로, 가이라, 감남준, 강경란, 강경아, 강경원, 강경현, 강계순, 강계현, 강교리, 강나리, 강나영, 강남식, 강남태, 강다루, 강도규, 강두영, 강량규, 강명지, 강문금, 강미애, 강민경, 강민규, 강민규, 강민석, 강민수, 강민정, 강민호, 강민희, 강복희, 강봉애, 강서봉, 강석기, 강석우, 강선구, 강선희, 강성민, 강성원, 강성철, 강성혜, 강성희, 강세라, 강소라, 강소영,

강수진, 강수현, 강숙봉, 강순선, 강승언, 강승욱, 강승현, 강승훈, 강신봉, 강신열, 강신열, 강신태, 강신호, 강애경, 강양순, 강양호,
 강 영, 강영비, 강영수, 강영애, 강영준, 강 용, 강용철, 강웅규, 강유미, 강유진, 강윤영, 강윤희, 강은숙, 강은애, 강은진,
 강이슬, 강인숙, 강인영, 강인희, 강재은, 강전욱, 강정구, 강정구, 강정남, 강정순, 강정원, 강종순, 강종운, 강주연, 강준구,
 강지형, 강지혜, 강진구, 강진영, 강진주, 강찬구, 강창성, 강태욱, 강태준, 강태준, 강한울, 강해린, 강해린, 강현모, 강현민,
 강현선, 강현정, 강현주, 강형선, 강혜선, 강휘경, 강희자, 경전숙, 고갑현, 고경아, 고경자, 고관우, 고금주, 고나은, 고다은,
 고동열, 고미례, 고미희, 고민숙, 고배궁, 고병윤, 고보민, 고봉국, 고서영, 고석례, 고수인, 고승기, 고승희, 고아라, 고아라,
 고영운, 고영희, 고완희, 고용자, 고유진, 고은별, 고은비, 고은이, 고재민, 고재봉, 고재봉, 고정민, 고정선, 고정애, 고정인,
 고정자, 고정현, 고종우, 고종희, 고준성, 고지인, 고지훈, 고초록, 고태훈, 고현실, 고희익, 공경래, 공낙영, 공문영, 공인숙,
 공점순, 공정식, 공현주, 공현진, 공희재, 공희진, 광 건, 광경훈, 광광호, 광다은, 광다현, 광동임, 광명희, 광민철, 광순구,
 광승희, 광영준, 광예린, 광용호, 광은정, 광인숙, 광재신, 광종임, 광 준, 광준영, 광지훈, 광진선, 광창순, 광현주, 광현진,
 광혜진, 구교석, 구대욱, 구문희, 구민성, 구민재, 구민정, 구민주, 구범혁, 구병모, 구본길, 구상모, 구소라, 구소정, 구숙현,
 구옥임, 구용순, 구유경, 구은정, 구은희, 구태훈, 구현정, 권계정, 권기현, 권나현, 권난경, 권남선, 권남훈, 권동민, 권명길,
 권미림, 권민기, 권민지, 권민혜, 권범진, 권병진, 권상훈, 권선희, 권성현, 권성호, 권세나, 권세일, 권세혁, 권 솔, 권수지,
 권수호, 권순범, 권순아, 권순애, 권순자, 권순중, 권슬기, 권아름, 권여정, 권연수, 권영민, 권영빈, 권영자, 권영필, 권오성,
 권오영, 권옥분, 권용재, 권용주, 권용희, 권유정, 권은정, 권이슬, 권정민, 권정선, 권정숙, 권정인, 권정임, 권정휘, 권정희,
 권준택, 권준혁, 권지현, 권진우, 권처완, 권태호, 권하랑, 권하영, 권해자, 권혁성, 권혁재, 권혁조, 권혁주, 권현주, 권혜빈,
 권혜원, 권효례, 권효자, 권효택, 권희경, 권희자, 권희정, 근재봉, 근태준, 금승훈, 금윤재, 기승윤, 기영준, 기진실, 길영미,
 김가경, 김가영, 김가영, 김가혜, 김가희, 김강현, 김건용, 김건우, 김건태, 김건형, 김건희, 김경남, 김경만, 김경미, 김경미,
 김경민, 김경민, 김경민, 김경선, 김경수,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아, 김경연, 김경은, 김경은, 김경자, 김경자, 김경준,
 김경중, 김경진, 김경채, 김경환, 김경환, 김경환,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경희, 김계선, 김계자, 김계형, 김고은,
 김관진, 김광명, 김광식, 김광용, 김광태, 김광현, 김광호, 김구연, 김국진, 김국현, 김귀순, 김규남, 김규식, 김규춘, 김규태,
 김규현, 김근민, 김근섭, 김근수, 김근식, 김근우, 김근재, 김금순, 김금자, 김금주, 김금중, 김금춘, 김기동, 김기동, 김기란,
 김기룡, 김기범, 김기범, 김기삼, 김기성, 김기숙, 김기숙, 김기순, 김기순, 김기열, 김기완, 김기운, 김기원, 김기윤, 김기재,
 김기준, 김기태, 김기현, 김기형, 김기호, 김기희, 김길석, 김길순, 김나라, 김나연, 김나영, 김나은, 김나현, 김난순, 김난영,
 김난영, 김난영, 김남구, 김남형, 김내영, 김다나, 김다미, 김다솔, 김다영, 김다예, 김다은, 김다정, 김다해, 김다현, 김단욱,
 김대성, 김대영, 김대원, 김대준, 김대준, 김대학, 김대현, 김대훈, 김대희, 김덕순, 김덕신, 김덕환, 김덕훈, 김도경, 김도연,
 김도연, 김도영, 김도영, 김도영, 김도우, 김도우, 김도윤, 김도현, 김도현, 김도형, 김도화, 김도훈, 김도희, 김도희, 김동규,
 김동기, 김동린, 김동민, 김동민, 김동분, 김동수, 김동연, 김동연, 김동영, 김동욱, 김동욱, 김동욱, 김동윤, 김동은, 김동춘,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호, 김동환, 김동훈, 김동휘, 김동휴, 김동희, 김두엽, 김두한, 김두한,
 김두환, 김두환, 김 란, 김륜영, 김린다, 김만흠, 김말순, 김말심, 김명경, 김명규, 김명남, 김명숙, 김명숙, 김명순, 김명순,
 김명자, 김명지, 김명희, 김명희, 김무신, 김문규, 김문숙, 김문영, 김문자, 김문자,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나, 김미란,
 김미란, 김미령, 김미례, 김미문, 김미선, 김미성,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용	김미운	김미자	김미자	김미정	김미진	김미향	김미현	김미희	김미희	김미희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경
김민규	김민규	김민규	김민균	김민기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김민섭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식	김민양	김민영
김민영	김민욱	김민의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제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주	김민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지	김민진	김민진	김민채	김민철	김민혜	김민혜	김민희	김백곤
김범석	김범준	김범준	김범호	김병관	김병기	김병아	김병엽	김병욱	김병준	김병준	김병철	김병호	김보라	김보라
김보람	김보미	김보연	김보연	김보영	김보영	김보현	김복실	김봉구	김봉운	김봉호	김부기	김부림	김분희	김상길
김상덕	김상민	김상엽	김상오	김상우	김상우	김상철	김상현	김상현	김상환	김상희	김상희	김상희	김상희	김사론
김서경	김서연	김서우	김석고	김석원	김선경	김선민	김선민	김선민	김선봉	김선분	김선영	김선영	김선옥	김선옥
김선우	김선종	김선중	김선진	김선진	김선향	김선홍	김선화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 설	김설희	김성곤	김성기
김성동	김성민	김성민	김성민	김성수	김성식	김성열	김성은	김성일	김성자	김성진	김성진	김성찬	김성태	김성필
김성환	김성환	김성희	김세연	김세준	김세현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연	김소영	김소영	김소윤
김소정	김소현	김소형	김소희	김솔지	김수갑	김수교	김수림	김수미	김수미	김수민	김수민	김수아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열	김수영	김수오	김수윤	김수정	김수정	김수정	김수지	김수진	김수진	김수한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숙자	김숙자	김숙희	김순녀	김순덕	김순례	김순애	김순연	김순연	김순옥	김순옥	김순옥	김순옥	김순옥	김순이
김순임	김순자	김순자	김순주	김슬기	김슬아	김승권	김승민	김승민	김승애	김승옥	김승완	김승은	김승주	김승현
김승현	김승현	김승환	김승환	김승희	김승희	김시완	김시은	김신길	김신우	김신우	김신자	김아라	김아람	
김아름	김아영	김아영	김아영	김아영	김애숙	김양수	김양수	김양희	김양희	김에스더	김연미	김연선	김연숙	김연우
김연주	김연화	김열매	김 영	김영광	김영규	김영남	김영덕	김영돈	김영득	김영룡	김영무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미	김영민	김영삼	김영섭	김영섭	김영세	김영수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영
김영옥	김영완	김영원	김영은	김영의	김영임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자	김영종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준	김영지	김영진	김영택	김영현	김영호	김영호	김영화	김영화	김영환	김영후	김영훈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예슬	김예슬	김예지	김예지	김예현	김옥남	김옥빈	김옥선	김옥자	김옥자	김옥화	김용분
김용선	김용수	김용인	김용일	김용자	김용자	김용주	김용현	김용호	김용희	김우기	김우성	김우용	김우인	김우정
김우종	김우현	김운정	김원수	김원일	김원일	김원중	김원희	김월란	김월란	김유나	김유리	김유림	김유미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한	김유혜	김윤규	김윤기	김윤기	김윤린	김윤문	김윤섭	김윤식	김윤심	김윤애
김윤정	김윤정	김윤주	김윤주	김윤준	김윤중	김윤진	김윤환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경
김은경	김은선	김은숙	김은아	김은영	김은예	김은옥	김은옥	김은자	김은재	김은전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주	김은주	김은지	김은총	김은태	김은혜	김은호	김은희	김은희	김의성	김의진	김이권	김이슬
김이슬	김이은	김이지	김익현	김익환	김인배	김인수	김인수	김인애	김인영	김인영	김인자	김인자	김인철	김인학
김인혜	김인혜	김인환	김일문	김일중	김임수	김장원	김재만	김재백	김재수	김재순	김재연	김재엽	김재영	김재완
김재욱	김재철	김재하	김재한	김재혁	김재현	김재현	김재현	김재형	김재호	김재환	김재환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
김재훈	김재희	김점수	김점수	김정걸	김정근	김정기	김정남	김정단	김정란	김정래	김정래	김정륜	김정만	김정미

김정빈, 김정삼,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순, 김정애, 김정애, 김정애, 김정연, 김정연, 김정옥, 김정옥, 김정옥, 김정우,
 김정원, 김정윤,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정자, 김정태, 김정한, 김정현, 김정호, 김정화, 김정환, 김정환,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제훈, 김종국, 김종기, 김종명, 김종미, 김종성, 김종순, 김종식, 김종욱, 김종인,
 김종철, 김종태, 김종혁, 김종현, 김종호, 김종호, 김주만, 김주연, 김주연, 김주현, 김주현, 김주현, 김주혜, 김주희, 김 준,
 김준범, 김준석, 김준영, 김준영, 김준태, 김준태, 김준현, 김준호, 김준호, 김중현, 김지경, 김지관, 김지나, 김지명, 김지민,
 김지민, 김지석, 김지섭,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애,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예, 김지용, 김지운,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인,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호, 김지환, 김지효,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지훈, 김 진, 김진경, 김진두, 김진서, 김진석,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안,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김진옥, 김진용, 김진용, 김진이, 김진주, 김진표, 김진형, 김진홍, 김진희, 김진희, 김찬수, 김찬오,
 김찬원, 김찬현, 김창범, 김창선, 김창현, 김창현, 김창화, 김채리, 김채림, 김채영, 김천균, 김철호, 김철희, 김초룡, 김춘근,
 김춘자, 김춘화, 김충덕, 김충성, 김충한, 김태경, 김태경, 김태경, 김태림, 김태민, 김태선, 김태수, 김태식, 김태영, 김태오,
 김태오, 김태용, 김태우, 김태원, 김태윤, 김태은, 김태임, 김태학, 김태현, 김태현, 김태환,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김태훈, 김태희, 김택중, 김평옥, 김필수, 김하나, 김하늘, 김하늬, 김하성, 김하은, 김학문,
 김학성, 김 한, 김한결, 김한별, 김한별, 김한선, 김한아, 김한용, 김한욱, 김한응, 김한준, 김한준, 김해곤, 김해숙, 김해욱,
 김해원, 김행규, 김행한, 김향미, 김향원, 김현준, 김혁주, 김혁준, 김혁진, 김현규, 김현균, 김현미, 김현미, 김현선, 김현성,
 김현숙, 김현숙, 김현승, 김현식, 김현식, 김현아, 김현아, 김현아, 김현웅, 김현자,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종, 김현종, 김현준, 김현지, 김현지, 김현호, 김현희, 김형규, 김형규, 김형래, 김형선, 김형욱, 김형진, 김형화,
 김혜경, 김혜경, 김혜경, 김혜라, 김혜란, 김혜련, 김혜리, 김혜린, 김혜민, 김혜숙, 김혜숙, 김혜숙, 김혜숙, 김혜영, 김혜욱,
 김혜원, 김혜인, 김혜정, 김혜중, 김혜진, 김호민, 김호영, 김호일, 김호준, 김홍길, 김홍란, 김홍성, 김홍준, 김홍진, 김화곤,
 김화실, 김화중, 김환기, 김환희, 김희수, 김효경, 김효영, 김효영, 김효인, 김효자, 김효재, 김효정, 김효정, 김효진, 김휘명,
 김흥곤, 김 희, 김희선, 김희섭, 김희숙, 김희애, 김희연, 김희욱, 김희정, 김희정, 김희주, 김희주, 김희진, 김희진, 나경순,
 나경아, 나경화, 나귀임, 나기선, 나상을, 나석주, 나세림, 나세영, 나세진, 나애순, 나연심, 나영인, 나영희, 나예은, 나우영,
 나윤재, 나은경, 나은지, 나을순, 나하영, 나호원, 남강현, 남경순, 남경화, 남궁완, 남궁지은, 남규석, 남기웅, 남동균, 남동원,
 남선우, 남성호, 남수희, 남순섭, 남슬기, 남승란, 남승은, 남아현, 남연주, 남우연, 남윤경, 남윤혜, 남정모, 남정현, 남정현,
 남지웅, 남한석, 남현석, 남현선, 남형석, 남휘민, 남휘영, 노경철, 노경환, 노광선, 노기주, 노동균, 노미선, 노민형, 노병채,
 노사순, 노성모, 노성모, 노성열, 노세종, 노수연, 노숙자, 노순아, 노순정, 노승분, 노승욱, 노연복, 노 영, 노영희, 노용남,
 노은래, 노재훈, 노정연, 노정옥, 노창환, 노현성, 노형철, 노희설, 노희정, 노희정, 노희진, 데더백, 도민영, 도우리, 도유빈,
 도유진, 라건주, 라동수, 라용섭, 라이라, 라주영, 류기연, 류경주, 류고운, 류기수, 류성용, 류수정, 류승중, 류연주, 류오현,
 류인혁, 류종용, 류지훈, 류 진, 류호준, 마 솔, 마수정, 마에니, 매송이, 맹성주, 맹정연, 맹지혜, 명광식, 명수련, 모상우,
 모화선, 목선영, 목지은, 몰하우스, 문갑주, 문경민, 문경옥, 문경옥, 문경자, 문경희, 문금자, 문기태, 문모다, 문미경, 문미향,
 문미화, 문병철, 문보라, 문봉주, 문서연, 문석호, 문선주, 문성수, 문수희, 문숙자, 문순옥, 문순옥, 문승현, 문승환, 문영례,

문영철, 문영희, 문옥란, 문우식, 문유선, 문윤선, 문은권, 문이슬, 문재희, 문정민, 문정주, 문정화, 문종열, 문주원, 문주윤,
 문지애, 문지현, 문지희, 문진희, 문찬영, 문하수, 문현석, 문형준, 문혜성, 문혜인, 문희정, 민경대, 민경숙, 민경운, 민경원,
 민남기, 민덕기, 민병현, 민성규, 민수빈, 민연희, 민영기, 민인경, 민정은, 민조웅, 민지윤, 민지혜, 민진원, 민현지, 민혜원,
 민희준, 박 철, 박가영, 박건영, 박건우, 박경동, 박경리, 박경리, 박경숙, 박경숙, 박경숙, 박경아, 박경애, 박경애, 박경익,
 박경주,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관현, 박광례, 박광만, 박광서, 박광석, 박광수, 박광진, 박광호, 박군남, 박귀자,
 박규민, 박규민, 박규방, 박근태, 박금숙, 박금순, 박금순, 박금지, 박기남, 박기남, 박기완, 박기원, 박나영, 박다솜, 박다운,
 박다운, 박다정, 박다진, 박다혜, 박도일, 박도일, 박동규, 박동례, 박동진, 박동현, 박동현, 박동호, 박두리, 박륜홍, 박명우,
 박문경, 박문자, 박미순, 박미연, 박미영, 박미현, 박민규, 박민주, 박민준, 박민지, 박민진, 박민호, 박병내, 박병렬, 박병옥,
 박보경, 박보경, 박보화, 박삼삼, 박상구, 박상규, 박상두, 박상민, 박상복, 박상욱, 박상욱, 박상진, 박상필, 박상헌, 박상헌,
 박상현, 박상현, 박생만, 박서영, 박서우, 박서희, 박선미, 박선애, 박선혜, 박선호, 박선화, 박선희, 박성경, 박성련, 박성순,
 박성심, 박성은, 박성제, 박성조, 박성진, 박성찬, 박성표, 박성학, 박성호, 박성훈, 박성훈, 박세라, 박세연, 박세은, 박세이,
 박세정, 박세정, 박세진, 박세진, 박세진, 박세현, 박소신, 박소영, 박소영, 박소정,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현, 박소희,
 박솔하, 박수경, 박수빈, 박수열, 박수열, 박수영, 박수자, 박수정, 박수정, 박수지, 박수진, 박수천, 박수현, 박수영, 박숙자,
 박순남, 박순분, 박순옥, 박순자, 박순천, 박순희, 박순희, 박솔기, 박승숙, 박승오, 박승우, 박승우, 박승주, 박승혁, 박시용,
 박신애, 박쌍민, 박애선, 박양규, 박양숙, 박양순, 박연숙, 박연순, 박연식, 박영란, 박영미, 박영선, 박영선, 박영순, 박영순,
 박영애, 박영은, 박영임, 박영주, 박영준, 박영화, 박영환, 박영희, 박영희, 박예린, 박예림, 박예빈, 박예수, 박예슬, 박예음,
 박옥렬, 박옥희, 박용건, 박용욱, 박용운, 박용진, 박용현, 박우리, 박우영, 박우영, 박우진, 박웅기, 박원진, 박월덕, 박유준,
 박윤석, 박윤정, 박은수, 박은아, 박은정, 박은주, 박은지, 박은채, 박응희, 박이남, 박이령, 박인숙, 박인자, 박인진, 박익새,
 박재범, 박재유, 박재은, 박재현, 박재형, 박재홍, 박점식, 박정근, 박정근, 박정란, 박정례, 박정미, 박정민, 박정수, 박정수,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순, 박정완, 박정윤, 박정은, 박정임, 박정자, 박정찬, 박정표, 박정혁, 박정현, 박정혜, 박정호,
 박정호, 박정호, 박제연, 박종근, 박종길, 박종성, 박종욱, 박종인, 박주선, 박주영, 박주영, 박주용, 박주원, 박주은, 박주현,
 박주희, 박주희, 박준선, 박준영, 박준영, 박준영, 박준우, 박준우, 박준우, 박준철, 박준현, 박준호, 박종원, 박지민, 박지수,
 박지수, 박지애, 박지영, 박지영, 박지영, 박지에, 박지웅, 박지원, 박지원, 박지은, 박지은, 박지인, 박지인, 박지현, 박지희,
 박 진, 박진규, 박진덕, 박진성, 박진숙, 박진영, 박진영, 박진이, 박진철, 박진현, 박차숙, 박찬도, 박찬목, 박창남, 박창범,
 박창하, 박채린, 박철언, 박초롱, 박초롱, 박춘자, 박태일, 박태준, 박태희, 박하나, 박하성, 박하얀, 박하진, 박한진, 박향남,
 박향관, 박향임, 박현강, 박현목, 박현서, 박현선, 박현선, 박현숙, 박현아, 박현영, 박현자, 박현정, 박현주, 박현주, 박현주,
 박현화, 박형민, 박형배, 박형수, 박형준, 박형진, 박혜미, 박혜수, 박혜영, 박혜영, 박혜진, 박혜진, 박혜진, 박호선, 박호성,
 박 흥, 박홍균, 박홍철, 박희순, 박황균, 박희식, 박효민, 박효영, 박휘돈, 박 희, 박희숙, 박희숙, 박희준, 박희태, 박희현,
 반성배, 반영학, 방루비, 방수진, 방수철, 방윤식, 방점욱, 방정희, 방지영, 방지혜, 방현승, 방호영, 방환영, 방경문, 배동주,
 배문기, 배문우, 배미선, 배민정, 배상현, 배성준, 배성호, 배소윤, 배수현, 배숙자, 배옥자, 배용운, 배우영, 배우나, 배윤주,
 배은혜, 배인순, 배인호, 배정호, 배정호, 배주원, 배준우, 배현숙, 배현실, 배형진, 배희숙, 백경준, 백귀옥, 백대진, 백두산,
 백명순, 백명자, 백민아, 백민주, 백상훈, 백설아, 백소라, 백승희, 백승아, 백연주, 백영희, 백영희, 백원향, 백유진, 백은정,

백인실, 백인실, 백정남, 백종수, 백준기, 백지선, 백지영, 백진영, 벨 르, 변경화, 변규미, 변문선, 변미경, 변세희, 변영수,
 변영자, 변유미, 변은교, 변정우, 변종호, 변지은, 변해은, 변휘민, 복민수, 복진순, 봉영금, 사민희, 상은혜, 서경화, 서기원,
 서나래, 서도석, 서동우, 서동현, 서동현, 서명옥, 서민규, 서민선, 서민영, 서반석, 서석만, 서선주, 서성욱, 서송이, 서순명,
 서슬기, 서안자, 서애리, 서영선, 서영숙, 서영진, 서예지, 서옥경, 서용기, 서원득, 서유경, 서유미, 서유미, 서유빈, 서유진,
 서윤경, 서은미, 서은별, 서은숙, 서은희, 서장원, 서장원, 서재호, 서정범, 서정선, 서정선, 서정옥, 서정현, 서정희, 서제니,
 서주태, 서지미, 서지연, 서지완, 서지원, 서지유, 서지은, 서지현, 서지혜, 서진만, 서진실, 서진영, 서진희, 서태원, 서현규,
 서현도, 서현영, 서현정, 서형외, 서형원, 서혜인, 서혜진, 서효경, 서희, 석용배, 석정도, 석종원, 선승희, 선진모, 선홍규,
 설경숙, 설기창, 설용하, 설용화, 설원주, 설혜선, 성가진, 성명용, 성민경, 성승낙, 성시화, 성우영, 성재욱, 성재호, 성정미,
 성정선, 성정미, 성정화, 성정훈, 성지훈, 성진숙, 성진원, 성하영, 성현영, 성현진, 성혜아, 소길호, 소덕순, 소찬호, 손경수,
 손경숙, 손다현, 손동숙, 손동영, 손명완, 손미선, 손미혜, 손민석, 손민영, 손민현, 손민희, 손선분, 손성수, 손성지, 손수남,
 손수은, 손수이, 손영자, 손영준, 손용일, 손용진, 손용진, 손우식, 손우정, 손우리, 손유림, 손유현, 손은비, 손임순, 손정숙,
 손조은, 손종백, 손종욱, 손종화, 손주희, 손지수, 손지우, 손지형, 손필수, 손현경, 손현정, 손현희, 손혜단, 손혜주, 손화정,
 손효석, 송경찬, 송남경, 송다은, 송동순, 송동훈, 송두리, 송미영, 송미영, 송민지, 송민혜, 송병달, 송봉건, 송봉수, 송빛나,
 송서윤, 송선영, 송성한, 송순호, 송아림, 송영민, 송영빈, 송영준, 송영준, 송영화, 송예은, 송옥선, 송용수, 송윤경, 송의영,
 송이, 송재성, 송재희, 송정은, 송주연, 송지원, 송지현, 송지훈, 송지희, 송진호, 송창훈, 송한규, 송해솔, 송해찬, 송현근,
 송현숙, 송현지, 송혜원, 송홍자, 송희영, 송희선, 승영걸, 승현수, 신경애, 신경자, 신계숙, 신기성, 신나라, 신다을, 신동윤,
 신동주, 신동준, 신동하, 신동호, 신동호, 신레아, 신미경, 신민경, 신민철, 신복자, 신봉악, 신빛나라, 신상헌, 신상훈, 신선애,
 신선주, 신선주, 신성수, 신성환, 신세정, 신소라, 신소미, 신수현, 신순희, 신승애, 신아리슬, 신애정, 신양섭, 신연재, 신연주,
 신영범, 신영숙, 신영옥, 신옥숙, 신옥자, 신옥희, 신용일, 신우철, 신유리, 신유선, 신윤지, 신윤희, 신은경, 신은경, 신은경,
 신은혜, 신을진, 신이수, 신장우, 신재균, 신재민, 신재완, 신재원, 신재훈, 신정아, 신정원, 신정자, 신종주, 신지선, 신지원,
 신지원, 신지원, 신지현, 신진숙, 신철호, 신춘나, 신춘호, 신치향, 신태현, 신택수, 신하섭, 신학원, 신현경, 신현숙, 신현영,
 신형욱, 신혜원, 신혜원, 신혜원, 신혜진, 신호용, 신호종, 신희범, 신희섭, 신희정, 신희주, 실 리, 심경희, 심기섭, 심누리,
 심도윤, 심명석, 심무길, 심미경, 심민경, 심민규, 심봉선, 심분난, 심상권, 심상분, 심상섭, 심성훈, 심소연, 심소희, 심수연,
 심연재, 심연주, 심영수, 심용호, 심유라, 심은경, 심은자, 심은지, 심재관, 심재광, 심준기, 심지수, 심진주, 심찬수, 심현수,
 심화자, 악영기, 안가람, 안갑숙, 안경량, 안경아, 안경호, 안광호, 안기태, 안기현, 안길중, 안다혜, 안동혁, 안만수, 안민선,
 안민정, 안민철, 안병진, 안석진, 안선미, 안성근, 안성미, 안성연, 안성현, 안성현, 안세환, 안소강, 안소영, 안소현, 안수진,
 안승찬, 안시현, 안신혜, 안아미, 안연이, 안영십, 안영자, 안옥희, 안유진, 안재란, 안재민, 안재원, 안정윤, 안정은, 안정은,
 안종모, 안종민, 안종우, 안준범, 안준호, 안중선, 안지혜, 안진수, 안초롱, 안충남, 안태진, 안현주, 안혜자, 안혜진, 안희상,
 안희숙, 안희진, 양경식, 양경연, 양경욱, 양금선, 양금순, 양기영, 양나성, 양남례, 양대민, 양동길, 양동모, 양동은, 양동호,
 양명재, 양문경, 양미성, 양민석, 양상민, 양상음, 양 섁, 양선민, 양선숙, 양수진, 양승욱, 양승철, 양양승, 양연희, 양영자,
 양영환, 양옥경, 양유승, 양윤자, 양은주, 양일녀, 양재범, 양재연, 양재혁, 양재형, 양정대, 양정윤, 양정은, 양종혁, 양종희,
 양지원, 양지혜, 양진숙, 양진영, 양한구, 양현중, 양현찬, 양현호, 양혜민, 양혜원, 양혜정, 양희경, 양희국, 양희국, 양희향,

어태경, 어희정, 엄새미, 엄익진, 엄정훈, 엄태선, 엄태훈, 엄희재, 여경수, 여민정, 여슬기, 여승훈, 여영구, 여운중, 여운호,
 여정숙, 여지원, 여청동, 여하경, 여효선, 연경순, 연지연, 연태호, 염금희, 염은초, 염인순, 염정숙, 염정운, 염혜숙, 염홍식,
 예동희, 예수아, 오경석, 오경순, 오경순, 오경희, 오광호, 오광환, 오길환, 오다고, 오대성, 오덕인, 오도열, 오동윤, 오동화,
 오명주, 오미경, 오미자, 오미현, 오민선, 오민영, 오민혁, 오병환, 오복자, 오상민, 오선량, 오세진, 오세환, 오소라, 오소영,
 오수민, 오수복, 오수진, 오수진, 오수진, 오순영, 오순임, 오슬기, 오연수, 오연숙, 오영진, 오영철, 오영환, 오영훈, 오예슬,
 오오님, 오요한, 오유정, 오윤경, 오은미, 오인혜, 오재옥, 오재정, 오정빈, 오정숙, 오정애, 오정연, 오정원, 오정현, 오정환,
 오지원, 오지현, 오창금, 오창영, 오한희, 오해미, 오현정, 오현주, 오혜선, 오혜정, 오효자, 오효진, 오희경, 옥미현, 왕금라,
 왕금미, 왕금화, 왕동영, 왕성훈, 왕현지, 용상언, 용상재, 용유진, 용혁중, 우갑여, 우근하, 우보금, 우보열, 이상욱, 우성균,
 우수민, 우승민, 우양림, 우연수, 우윤화, 우정임, 우종근, 우종호, 우하니, 우현희, 우홍식, 우희대, 위 서, 원미숙, 원병호,
 원성희, 원성희, 원아람, 원재아, 원지은, 원현정, 원희진, 웰스, 위대현, 위상현, 유가영, 유경균, 유경남, 유경숙, 유경화,
 유경희, 유공심, 유관우, 유기숙, 유나연, 유난형, 유달아, 유동균, 유루리, 유명은, 유미경, 유미숙, 유미연, 유민경, 유민경,
 유민수, 유민영, 유민진, 유범영, 유병덕, 유병석, 유보라, 유보영, 유상만, 유선자, 유성미, 유성원, 유성철, 유성호, 유소영,
 유소영, 유소정, 유소현, 유슬비, 유송이, 유수남, 유수열, 유수정, 유수현, 유수현, 유숙자, 유순옥, 유순임, 유승연,
 유승완, 유승윤, 유승중, 유승호, 유승희, 유시연, 유아론, 유연희, 유영란, 유영미, 유영준, 유영채, 유영훈, 유영희, 유영희,
 유예슬, 유외순, 유용희, 유원순, 유원주, 유위태, 유윤숙, 유은경, 유은비, 유은성, 유은정, 유은주, 유은지, 유은혜, 유인철,
 유일상, 유재민, 유재연, 유재원, 유정상, 유정원, 유정윤, 유정인, 유정현, 유정화, 유제신, 유제실, 유주혜, 유중식, 유지선,
 유지수, 유지양, 유지원, 유지형, 유지혜, 유지희, 유 진, 유진걸, 유진성, 유진호, 유찬호, 유창원, 유채림, 유청향, 유춘자,
 유태웅, 유태하, 유한결, 유한윤, 유해동, 유현경, 유현미, 유현서, 유현아, 유현정, 유현희, 유혜림, 유혜인, 유화경, 유효선,
 유희원, 유희정, 유희진, 육미선, 육정임, 윤강희, 윤경덕, 윤경림, 윤경민, 윤경진, 윤광희, 윤광희, 윤다연, 윤대진, 윤도영,
 윤두리, 윤만식, 윤명옥, 윤무현, 윤 미, 윤미경, 윤미숙, 윤미자, 윤민석, 윤병원, 윤병현, 윤보나, 윤서연, 윤석봉, 윤석영,
 윤석정, 윤석준, 윤선우, 윤성민, 윤성우, 윤성원, 윤성철, 윤성현, 윤성호, 윤세영, 윤소린, 윤솔지, 윤수경, 윤수정, 윤수정,
 윤수진, 윤순영, 윤승미, 윤승진, 윤승환, 윤여건, 윤여상, 윤여평, 윤여혁, 윤영림, 윤영미, 윤영선, 윤영순, 윤영옥, 윤영효,
 윤예린, 윤예린, 윤예지, 윤예지, 윤예진, 윤오경, 윤요한, 윤용운, 윤월야, 윤윤선, 윤이나, 윤재복, 윤재선, 윤재웅, 윤재원,
 윤재현, 윤정미, 윤정연, 윤정윤, 윤정자, 윤정자, 윤정호, 윤정화, 윤정희, 윤종옥, 윤준호, 윤지선, 윤지영, 윤지현, 윤지환,
 윤진경, 윤진숙, 윤진환, 윤철진, 윤태웅, 윤평자, 윤현경, 윤현덕, 윤현익, 윤현진, 윤혜경, 윤혜림, 윤혜민, 윤혜수, 윤혜정,
 윤화용, 윤환영, 윤효임, 윤희원, 윤희정, 윤희주, 윤희향, 은소정, 은희성, 음지연, 이가현, 이가흠, 이강은, 이강현, 이강호,
 이건욱, 이경구, 이경기, 이경미, 이경범, 이경복, 이경선, 이경섭, 이경수, 이경수, 이경숙, 이경숙, 이경아, 이경애, 이경옥,
 이경우, 이경원, 이경은, 이경은, 이경재, 이경천, 이경택, 이경하, 이경하, 이경환, 이경훈, 이계순, 이계옥, 이관재, 이광만,
 이광봉, 이광수, 이광연, 이광임, 이광재, 이광주, 이구자, 이국자, 이귀희, 이규진, 이근선, 이근익, 이근홍, 이근화, 이금란,
 이금성, 이금순, 이금옥, 이금자, 이금자, 이금준, 이기문, 이기복, 이기영, 이기평, 이기훈, 이길선, 이길우, 이길훈, 이나래,
 이나래, 이나안, 이나영, 이나현, 이남걸, 이남영, 이남이, 이남현, 이남희, 이노현, 이다경, 이다름, 이다영, 이다원, 이다윤,
 이달웅, 이대규, 이대우, 이대현, 이덕균, 이덕숙, 이돈영, 이동복, 이동선, 이동연, 이동영, 이동우, 이동욱, 이동원, 이동재,

이동찬, 이동천, 이동철, 이동현, 이동호, 이동화, 이동환, 이동효, 이두리, 이디오레, 이만훈, 이명국, 이명선,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명숙, 이명숙, 이명재, 이명주, 이명진, 이명화, 이명희, 이묘재, 이무영, 이문기, 이문수, 이문숙, 이문철, 이문태,
 이미경, 이미경, 이미라, 이미란, 이미선, 이미순, 이미영, 이미영, 이미옥, 이미옥, 이미옥, 이미자, 이미지, 이미진, 이미현,
 이민경, 이민경, 이민경, 이민규, 이민선, 이민섭, 이민영, 이민재, 이민정, 이민정, 이민정, 이민주, 이민주, 이민지, 이민지,
 이민지, 이민철, 이민혜, 이병규, 이병로, 이병림, 이병영, 이병제, 이병제, 이병조, 이병주, 이병철, 이병철, 이병호, 이병희,
 이보라, 이보람, 이보연, 이보영, 이보은, 이보현, 이복수, 이복순, 이복자, 이봉숙, 이봉훈, 이봉희, 이부연, 이분숙, 이분희,
 이사열, 이상길, 이상만, 이상명, 이상미, 이상민, 이상민, 이상민, 이상석, 이상섭, 이상언, 이상엽, 이상엽, 이상옥, 이상옥,
 이상은, 이상은, 이상일, 이상정, 이상주, 이상주, 이상진, 이상진, 이상헌, 이상화, 이상화, 이상훈, 이새롬, 이새한, 이서라,
 이서연, 이서희, 이석민, 이석민, 이석주, 이석천, 이석현, 이선경, 이선국, 이선민, 이선민, 이선애, 이선우, 이선정, 이선주,
 이선하, 이선해, 이선희, 이선희, 이선희, 이성관, 이성숙, 이성심, 이성영, 이성운, 이성진, 이성춘, 이성혜, 이성호, 이성화,
 이성휘, 이세림, 이소담, 이소라, 이소라, 이소리, 이소연, 이소영, 이소정, 이소정, 이소정, 이승원, 이수경, 이수경, 이수동,
 이수민, 이수민, 이수복, 이수연, 이수연, 이수열, 이수영, 이수영, 이수용,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현,
 이수현, 이수희, 이숙련, 이숙련, 이숙이, 이순균, 이순녀, 이순복, 이순옥, 이순옥, 이순자, 이순호, 이순환, 이순희, 이순희,
 이슬기, 이슬기, 이슬기, 이슬비, 이슬이, 이승권, 이승록, 이승미, 이승민, 이승민, 이승민, 이승수, 이승아, 이승연, 이승용,
 이승은, 이승재, 이승주, 이승준, 이승준, 이승준, 이승철, 이승현, 이승현, 이승형, 이승환, 이승환, 이승환, 이승훈, 이승훈,
 이승훈, 이시덕, 이시원, 이시정, 이신비, 이신영, 이아르미, 이아름, 이아정, 이아현, 이안선, 이알찬, 이애경, 이애련, 이애리,
 이애자, 이애호, 이양현, 이어진, 이연종, 이연종, 이연경, 이연경, 이연경, 이연배, 이연옥, 이연자, 이연재, 이연재, 이연주,
 이연진, 이연창, 이연탁, 이연환, 이영규, 이영남, 이영림,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민, 이영복, 이영선, 이영선,
 이영섭, 이영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신, 이영우, 이영옥, 이영옥, 이영재, 이영주, 이영주, 이영진, 이영진, 이영훈,
 이영희, 이예리, 이예림, 이예순, 이예슬, 이예슬, 이예진, 이예진, 이예화, 이예환, 이옥희, 이완세, 이용균, 이용기, 이용리,
 이용석, 이용석, 이용석, 이용승, 이용욱, 이용준, 이용춘, 이용태, 이용하, 이용학, 이용호, 이용희, 이우선, 이우일, 이우중,
 이우태, 이우홍, 이운행, 이운환, 이운환, 이윤희, 이원경, 이원기, 이원미, 이원우, 이원재, 이원재, 이원주, 이원준, 이원중,
 이원형, 이원희, 이월희, 이유경, 이유경, 이유경, 이유경, 이유경, 이유나, 이유리, 이유민, 이유빈, 이유송, 이유연,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금, 이윤섭, 이윤승, 이윤자, 이윤재, 이윤정, 이윤정, 이윤주, 이윤한, 이윤호, 이윤호,
 이윤호, 이윤희, 이은누리, 이은미, 이은설, 이은섭, 이은솔, 이은솔,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 이은순, 이은순, 이은아, 이은아,
 이은영, 이은옥, 이은재, 이은정, 이은정, 이은지, 이은지, 이은지, 이은지, 이은진, 이은표, 이은희, 이의봉, 이의주, 이인경,
 이인구, 이인문, 이인서, 이인섭, 이인순, 이인애, 이인영, 이인희, 이일국, 이자영, 이장균, 이재경, 이재문, 이재민, 이재선,
 이재연, 이재영, 이재영, 이재왕, 이재욱, 이재운, 이재웅, 이재원, 이재정, 이재진, 이재혁, 이재혁, 이재형, 이재호, 이재호,
 이재호, 이재환, 이재훈, 이재훈, 이재훈, 이재훈, 이재희, 이재희, 이정미,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삼, 이정선,
 이정선, 이정성,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실, 이정심, 이정애, 이정애, 이정연, 이정연, 이정연, 이정윤,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인, 이정자, 이정재, 이정재, 이정주, 이정필, 이정향, 이정현, 이정현, 이정호, 이정화,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군, 이종남, 이종림, 이종명, 이종부, 이종수, 이종숙, 이종애, 이종연, 이종옥, 이종우, 이종천, 이종향,

이종현, 이종현, 이종호, 이주란, 이주연, 이주연,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원, 이주은, 이주학, 이주현, 이주현, 이주현,
 이주현, 이주형, 이주형, 이주호, 이주호, 이주호, 이주홍, 이주희, 이주희, 이주희, 이주희, 이준서, 이준섭, 이준수, 이준수,
 이준승, 이준영, 이준우, 이준한, 이준형, 이준호, 이중현, 이지민, 이지선, 이지선, 이지숙, 이지언,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예, 이지용, 이지원,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향,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혜, 이지희, 이진, 이진무, 이진수, 이진숙, 이진숙, 이진아, 이진아, 이진영, 이진우, 이진원,
 이진재, 이진주, 이진형, 이진희, 이찬규, 이찬범, 이찬우, 이찬우, 이찬행, 이창섭, 이창세, 이창식, 이창신, 이창욱, 이창훈,
 이창희, 이채린, 이채영, 이채원, 이채정, 이채훈, 이철용, 이철원, 이초롱, 이춘희, 이충근, 이태권, 이태근, 이태근, 이태룡,
 이태엽, 이태영, 이태영, 이태우, 이태호, 이태화, 이태희, 이태희, 이택기, 이택기, 이택영, 이판례, 이평건, 이평철, 이평현,
 이푸름, 이하늘, 이하연, 이하영, 이하은, 이하은, 이한나, 이한나, 이한성, 이한슬, 이한호, 이해슬, 이해숙, 이해옥, 이해정,
 이해진, 이행숙, 이행주, 이향순, 이향옥, 이현경, 이현경, 이현근, 이현구, 이현노, 이현덕, 이현미, 이현민, 이현숙, 이현아,
 이현아, 이현영, 이현영, 이현우,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준, 이현표, 이현희, 이형기, 이형석,
 이형석, 이형순, 이형주, 이형진, 이해경, 이해근, 이해린, 이해미, 이해선, 이해숙, 이해숙, 이해순, 이해순, 이해은, 이해인,
 이해정, 이해주, 이해진, 이해진, 이호경, 이호민, 이호석, 이호숙, 이호숙, 이호용, 이홍용, 이화범, 이화섭, 이화숙, 이효경,
 이효범, 이효숙, 이효정, 이효주, 이효진, 이후용, 이후창, 이훈, 이희경, 이희균, 이희대, 이희봉, 이희섭, 이희숙, 이희숙,
 이희영, 이희원, 이희자, 이희재, 이희진, 인수진, 임경남, 임경은, 임경진, 임계숙, 임구만, 임규숙, 임근엽, 임남순, 임다솔,
 임다혜, 임당수, 임덕호, 임동건, 임명숙, 임명희, 임무영, 임무택, 임문기, 임미애, 임민윤, 임민형, 임범국, 임병준, 임상구,
 임상수, 임상욱, 임상환, 임석현, 임선희, 임성민, 임성숙, 임성옥, 임성주, 임성택, 임성혁, 임세은, 임세정, 임소현, 임 솔,
 임순하, 임순희, 임승미, 임승수, 임승식, 임승인, 임승혜, 임신영, 임아영, 임영애, 임영욱, 임영희, 임예슬, 임옥례, 임옥순,
 임옥희, 임용근, 임원애, 임윤표, 임은지, 임은혜, 임재민, 임재호, 임재홍, 임 정, 임정숙, 임정아, 임종철, 임종훈, 임주미,
 임준성, 임준이, 임지윤, 임지은, 임지훈, 임진수, 임진완, 임진홍, 임채우, 임채정, 임천학, 임철현, 임청화, 임춘길, 임춘영,
 임춘자, 임태준, 임태준, 임필숙, 임하진, 임행신, 임현덕, 임현숙, 임현아, 임현욱, 임형규, 임형준, 임혜용, 임혜정, 임흥기,
 임흥택, 임 흥, 임희택, 장경림, 장국진, 장국현, 장규중, 장규진, 장규호, 장금희, 장 단, 장명완, 장명원, 장명자, 장미희,
 장민영, 장병준, 장보라, 장부근, 장분연, 장상우, 장석연, 장석영, 장성순, 장성태, 장세진, 장송자, 장수민, 장수빈, 장수연,
 장순규, 장순희, 장연주, 장영란, 장영미, 장영수, 장영순, 장영옥, 장영준, 장영진, 장예슬, 장옥선, 장용민, 장용원, 장욱진,
 장원석, 장원석, 장유진, 장윤선, 장윤선, 장윤정, 장윤희, 장은림, 장은숙, 장은자, 장은정, 장은주, 장은지, 장재순, 장재천,
 장정봉, 장정용, 장정은, 장정일, 장정임, 장정자, 장정희, 장주영, 장주현, 장주현, 장준원, 장지석, 장지수, 장지연, 장진경,
 장진영, 장진주, 장진하, 장한별, 장현수, 장현민, 장현수, 장현수, 장현호, 장형철, 장혜경, 장혜경, 장혜령, 장효영, 장효지,
 장 훈, 전경미, 전경민, 전경화, 전광석, 전규명, 전기우, 전꽃님, 전다인, 전다희, 전동훈, 전명구, 전명순, 전미영, 전미화,
 전민재, 전복수, 전상우, 전서연, 전성숙, 전성찬, 전세현, 전소희, 전순남, 전아로미, 전연아, 전영미, 전영주, 전영준, 전영태,
 전영택, 전유나, 전유림, 전윤선, 전윤수, 전은숙, 전은주, 전을수, 전인자, 전중서, 전중엽, 전주연, 전지현, 전진경, 전진아,
 전진주, 전춘자, 전태욱, 전태준, 전하늬, 전한나, 전해경, 전해원, 전현숙, 전현진, 전현호, 전현희, 전형민, 전해경, 전해림,
 전해미, 전해지, 전해진, 전호근, 전호철, 전희수, 전희순, 전희진, 정가람, 정가혜, 정경남, 정경도, 정경란, 정경민, 정경숙,

정경원, 정경진, 정경채, 정경철, 정경태, 정경희, 정계순, 정고은, 정관숙, 정광수, 정광필, 정광현, 정광형, 정교임, 정귀용,
 정규호, 정근우, 정금, 정금순, 정기룡, 정기선, 정기영, 정길만, 정길숙, 정남숙, 정다숨, 정다연, 정다원, 정다원, 정다운,
 정다운, 정다인, 정다진, 정동준, 정동환, 정두수, 정래원, 정리나, 정만수, 정명식, 정명주, 정미경, 정미경, 정미영, 정미혜,
 정미희, 정민경, 정민규, 정민석, 정민주, 정병순, 정보영, 정삼남, 정상진, 정상환, 정상희, 정서빈, 정서인, 정석기, 정석영,
 정석진, 정선애, 정선이, 정선철, 정성일, 정성재, 정세라, 정세아, 정세준, 정세진, 정세진, 정소민, 정소정, 정슬비, 정송영,
 정수안, 정수연, 정수영, 정수영, 정수용, 정수인, 정수현, 정수현, 정순덕, 정순미, 정순식, 정순애, 정순옥, 정순희, 정슬기,
 정승재, 정신숙, 정신희, 정연이, 정연필, 정영선, 정영선, 정영숙, 정영숙, 정영옥, 정영준, 정영철, 정영환, 정예연, 정옥자,
 정왕오, 정용숙, 정용혁, 정우빈, 정우석, 정우성, 정우재, 정원재, 정유근, 정유미, 정유선, 정유진, 정유진, 정유진, 정유희,
 정윤원, 정윤호, 정은경, 정은비, 정은아, 정은정, 정은주, 정은지, 정은지, 정은지, 정은혜, 정이연, 정인숙, 정인숙, 정인숙,
 정인순, 정인아, 정인호, 정일대, 정임근, 정재경, 정재분, 정재순, 정재엽, 정재윤, 정재호, 정재훈, 정재희, 정점래, 정정래,
 정정숙, 정정순, 정정희, 정제수, 정종건, 정종래, 정종철, 정종호, 정종훈, 정주미, 정준기, 정준석, 정지민, 정지선, 정지연,
 정지용, 정지원, 정지윤, 정지인, 정지인, 정지철, 정지형, 정지혜, 정지호, 정지훈, 정진선, 정진오, 정창분, 정창주, 정총원,
 정태근, 정태준, 정태춘, 정풍년, 정필난, 정하나, 정하니, 정하람, 정하현, 정하나, 정한별, 정한솔, 정한숙, 정해련, 정현석,
 정현미, 정현민, 정현숙, 정현일, 정현주, 정현지, 정형숙, 정형진, 정혜숙, 정혜진, 정호진, 정홍근, 정홍근, 정화숙, 정회준,
 정희현, 정희순, 정희연, 정희진, 정희철, 제민기, 제효숙, 조가흔, 조경만, 조경숙, 조경숙, 조경숙, 조경애, 조귀옥, 조규동,
 조규숙, 조규옥, 조금희, 조길자, 조남경, 조남기, 조남연, 조남희, 조동규, 조명옥, 조명은, 조명자, 조명환, 조명희, 조무례,
 조무혁, 조미자, 조미희, 조민수, 조민영, 조민우, 조민정, 조민희, 조방초, 조범진, 조병선, 조병애, 조병준, 조병헌, 조복순,
 조삼형, 조상덕, 조상열, 조서연, 조성민, 조성희, 조소연, 조송이, 조수남, 조수아, 조수영, 조수진, 조수현, 조숙연, 조숙희,
 조순옥, 조순희, 조송문, 조승기, 조아라, 조 연, 조연우, 조연혁, 조영로, 조영만, 조영민, 조영아, 조영주, 조영찬, 조영혁,
 조영훈, 조예원, 조용주, 조용호, 조우식, 조원영, 조원주, 조원필, 조유리, 조유미, 조유정, 조유진, 조유흠, 조유흠, 조윤빈,
 조윤성, 조윤제, 조윤진, 조윤형, 조은길, 조은별, 조은비, 조은수, 조은식, 조은아, 조은옥, 조은지, 조은지, 조은지, 조은희,
 조이화, 조인택, 조인해, 조인해, 조일수, 조임정, 조장희, 조재란, 조재영, 조재인, 조재형, 조정배, 조정아, 조정은, 조정현,
 조정호, 조정희, 조주연, 조주연, 조준상, 조준일, 조준혁, 조지혜, 조진형, 조진희, 조창석, 조재연, 조철윤, 조하람, 조혁진,
 조현경, 조현경, 조현숙, 조현숙, 조현우, 조혜숙, 조호순, 조홍희, 조화자, 조효복, 조희경, 조희정, 존 슨, 작성민, 주경숙,
 주경희, 주미애, 주상진, 주소현, 주신영, 주예림, 주예진, 주용영, 주은선, 주은혜, 주이루, 주정임, 주필건, 주하나, 주해연,
 주형윤, 주화천, 주희영, 지기화, 지도윤, 지동훈, 지두연, 지미정, 지성동, 지승권, 지연경, 지유순, 지유순, 지진명, 진명희,
 진병기, 진병훈, 진서경, 진성희, 진수민, 진영, 진용순, 진정한, 진태희, 진한별, 진화영, 진효장, 진후락, 진희영, 차경자,
 차국원, 차미정, 차미희, 차선영, 차세현, 차수아, 차영주, 차예준, 차우빈, 차은성, 차재선, 차중현, 차주설, 차주원, 차해나,
 차호정, 차홍권, 채경희, 채규래, 채민석, 채민진, 채순임, 채아라, 채윤정, 채장희, 채정숙, 채준병, 채중석, 채태현, 채형규,
 천경미, 천경필, 천길순, 천막래, 천문선, 천송이, 천정환, 최가영, 최개희, 최고은, 최교준, 최국진, 최규동, 최규복, 최규혁,
 최근준, 최근호, 최금희, 최기웅, 최다미, 최대순, 최덕기, 최동권, 최동기, 최동섭, 최동수, 최동하, 최라빈, 최명화, 최명지,
 최명희, 최문영, 최문자, 최미경, 최미영, 최미자, 최미자, 최민영, 최병구, 최병국, 최병녀, 최병문, 최병철, 최보라, 최보미,

최보윤, 최복희, 최봉준, 최서윤, 최서정, 최서진, 최석환, 최선미, 최선보, 최선영, 최선영, 최선욱, 최선철, 최선현, 최선호,
 최선화, 최선희, 최성규, 최성규, 최성욱, 최성원, 최성탁, 최성환, 최성훈, 최소리, 최소현, 최솔비, 최송학, 최수영, 최수진,
 최순애, 최순제, 최순호, 최슬기, 최승국, 최승수, 최승운, 최승현, 최승호, 최승훈, 최아람, 최연, 최연규, 최연주, 최 영, 최영경,
 최영란, 최영배, 최영준, 최영희, 최예나, 최예림, 최옥수, 최옥필, 최용섭, 최용수, 최용실, 최용일, 최용환, 최우방, 최우중,
 최운용, 최우호, 최원, 최원배, 최원석, 최원석, 최원영, 최원재, 최원준, 최원준, 최원진, 최원호, 최월규, 최유나, 최유나,
 최유라, 최유란, 최유리, 최유민, 최유복, 최유순, 최유정, 최유진, 최유진, 최유진, 최윤영, 최윤예, 최윤용, 최윤정, 최은섭,
 최은신, 최은총, 최은혜, 최인석, 최인섭, 최인택, 최인혁, 최인현, 최임수, 최자혜, 최재경, 최재만, 최재우, 최재은, 최재은,
 최재은, 최재익, 최정근, 최정애, 최정애, 최정애, 최정운, 최정은, 최정인, 최정자, 최정자, 최정자, 최정태, 최정화, 최정환,
 최종기, 최종철, 최종훈, 최주리, 최주연, 최주영, 최주영, 최준영, 최준영, 최준우, 최지애, 최지연, 최지영, 최지원, 최지원,
 최지현, 최지혜, 최지환, 최지희, 최진숙, 최진아, 최진우, 최진우, 최진혁, 최찬희, 최철민, 최충일, 최태건, 최태영, 최하영,
 최하은, 최하은, 최하진, 최행진, 최혁락, 최현숙, 최현애, 최현중, 최현주, 최현준, 최현준, 최현태, 최형규, 최형숙, 최형은,
 최형주, 최형지, 최형진, 최형찬, 최혜림, 최혜민, 최혜선, 최혜숙, 최혜은, 최혜정, 최혜진, 최혜홍, 최호철, 최화자, 최화정,
 최환석, 최효선, 최효실, 최희원, 최희윤, 최희주, 추숙자, 추은초, 추정순, 코을로, 탁재현, 펠스테드, 편미임, 표경천, 피미경,
 하경래, 하경제, 하경희, 하금자, 하명림, 하명림, 하선양, 하성은, 하세연, 하재빈, 하재영, 하정아, 하정연, 하정희, 하화자,
 한경순, 한경은, 한광수, 한국인, 한기건, 한기영, 한기준, 한나련, 한누리, 한다애, 한달훈, 한동진, 한동헌, 한말남, 한미라,
 한미리, 한미선, 한미영, 한미옥, 한미자, 한미희, 한미희, 한반석, 한병근, 한복식, 한복희, 한삼만, 한상렬, 한상열, 한상우,
 한상준, 한상혁, 한 선, 한세연, 한송화, 한수진, 한숙란, 한순숙, 한승규, 한승연, 한승희, 한신우, 한아름, 한아름, 한애리,
 한연경, 한영서, 한영숙, 한영자, 한영현, 한예정, 한용희, 한우경, 한유정, 한윤숙, 한윤숙, 한윤숙, 한이재, 한인신, 한재영,
 한정민, 한정숙, 한정숙, 한정아, 한정용, 한정우, 한정희, 한종란, 한종문, 한종남, 한지혜, 한창운, 한평민, 한현숙, 한혜영,
 함간란, 함경식, 함미경, 함솔희, 함순례, 함영숙, 함윤경, 함윤경, 함제균, 함진호, 함현준, 해리슨, 허남옥, 허남옥, 허대진,
 허대현, 허동목, 허민도, 허병도, 허선정, 허성만, 허송이, 허수정, 허영전, 허원길, 허재웅, 허정선, 허정화, 허준녕, 허준영,
 허찬희, 허 현, 허형규, 허희정, 현경수, 현순옥, 현순철, 현슬기, 현영숙, 현은미, 현지수, 현지용, 현지은, 현희숙, 홍경숙,
 홍경식, 홍경애, 홍경자, 홍다애, 홍다애, 홍다진, 홍덕원, 홍도현, 홍두남, 홍령자, 홍미경, 홍미선, 홍미영, 홍민경, 홍민우,
 홍복희, 홍사현, 홍석준, 홍선민, 홍선상, 홍선옥, 홍선자, 홍선조, 홍성원, 홍성중, 홍성철, 홍성희, 홍송복, 홍순영, 홍순이,
 홍승연, 홍승연, 홍승표, 홍승혁, 홍승환, 홍영권, 홍영생, 홍영자, 홍영희, 홍예슬, 홍예은, 홍예지, 홍유나, 홍윤지, 홍의현,
 홍재민, 홍정교, 홍정민, 홍정화, 홍제우, 홍주영, 홍준, 홍지석, 홍지수, 홍지택, 홍진숙, 홍현선, 홍현승, 홍현아, 홍혜수,
 황혜정, 황광국, 황광국, 황광숙, 황귀선, 황규분, 황규자, 황규주, 황나연, 황대일, 황동숙, 황동임, 황동현, 황래석, 황명수,
 황명인, 황명주, 황무연, 황미혜, 황병연, 황선우, 황선재, 황성규, 황성수, 황성심, 황성연, 황성예, 황성윤, 황수진, 황순명,
 황순석, 황승환, 황영순, 황영아, 황영재, 황영하, 황용섭, 황우영, 황원주, 황유정, 황의철, 황인영, 황인옥, 황인용, 황인정,
 황인창, 황일연, 황재원, 황정미, 황정아, 황정자, 황종연, 황준하, 황지영, 황지예, 황지원, 황지현, 황진하, 황철균, 황청연,
 황춘재, 황한근, 황하나, 황해심, 황향란, 황 현, 황현주, 황현진, 황혜신, 황혜진, 황희정, 힐 트, Brian

으뜸양천과 함께 으뜸복지를 실천한
양천장애인복지 5년사

인 쇄 2009년 10월 인쇄

발 행 일 2009년 10월 인쇄

발 행 인 김주년

발 행 처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9
(신정6동 319-13)

전 화 02) 2061-2500

팩 스 02) 2061-2525

홈페이지 <http://www.ycsupport.or.kr>

